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경주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한국 걸 때까지 마라톤 경기이오니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알 곡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앉은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1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95호 2012년 8월 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런던올림픽, 선교올림픽으로 거듭 난다!

## 한미 기독교언론, 전 세계 선교단체 복음전도 활약상 보고

중국의 독주가 계속되고 미국이 바짝 뒤쫓고 있는 가운데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최대 운동 축전이 런던에서 열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 마치 드라마에 중독된 것처럼 텔레비전을 통해서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특별히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거나 극적인 경쟁이 일게 되면 사람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시청하게 된다. 런던이 미국 동부보다 5시간 빠르고, 서부보다 8시간 빠르기 때문에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워낙 많은 경기가 중계되기 때문에 마지막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이나 메달 수여식과 같은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기도 시간이 모자란다. 덕분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하이라이트와 승자의 모습 외에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금은동 메달을 따는 것이 전부 아니다. 그들은 수많은 경기와 심사를 거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종 선수로 선발됐다. 올림픽에 참가한 만 명이 넘는 선수들은 지난 4년, 아니 대부분 평생을 준비해왔다. 올림픽에 참가한 자체로도 그들은 이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충분하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올림픽과 같은 운동경기에 비유한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을 칭찬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결승선을 끊은 선수나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끊은 선수나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본 경기를 그려보면서 올림픽을 관전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준비된 결승전을 기대하면서 런던올림픽을 관전해보자.



선교단체들이 런던올림픽을 영국 기독교 재기의 기회로 삼으려 노력하고 있다.

런던 올림픽은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30회 올림픽으로 열린다. 그리고 올림픽을 마치면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패러림픽(장애인올림픽대회)이 열리게 된다. 이번 30회 런던 올림픽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4 나라가 참가한다. △10,500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26가지 종목에 302개의 경기가 열린다. △24만 명의 신청자 중에서 선정한 7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런던은 최초로 올림픽이 3번 열리는 도시가 됐다. △최초로 여자 권투 경기가 열린다. 이로써 모든 종목에 여성 경기가 열리게 된다. △최초로 3D 실황 중계가 이루어지는 올림픽이다.

런던올림픽조직위는 개막식에서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는 영국 문화의 상징들을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견제를 과시했다. 즉 세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 등을 주제로, 다소 난해한 올림픽 개막 세리머니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 그리스도들은 4년마다 맞이하는 지구촌 최대 운동 축전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신앙 올림픽’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성서공회(Bible Society)는 2012 런던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4000여 권의 성경 준비를 마쳤다. 즉 올림픽 빌리지 종교서비스센터(The Olympic Village Religious

Services Centre)에는 영어성경 3000여 권과, 전 세계 성서공회 협력국가들의 각국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책 1000여 권이 비치됐다. 특별히 런던올림픽에서 제공되는 성경책은 운동선수들을 위한 ‘더 스포츠 굿뉴스바이블(The Sports Good News Bible)’판과 ‘더 스포츠 굿뉴스바이블 누가복음’판 두 종류이다. 두 성경책 모두 운동선수들을 위해 운동과 신앙에 관한 특별한 주석이 달려있다.

성서공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iblesociety.org.uk/2012)를 통해 런던올림픽 성경 배포지지 후원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런던 일대에서는 지구촌 각국에서 온 교회공동체와 선교

단체들이 다채로운 선교 활동과 복음 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선교회는 한국스포츠선교회와 더불어 런던에 있는 15개 교회에서 전 미국 육상 국가대표인 칼 루이스 등 올림픽 스타를 초청, 간증 사역을 필두로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카리스마’(Charisma)지는 따라서 런던 하계올림픽이 단순히 운동 축전 이상의 선교대회 즉 복음을 전하는 축전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전 운동선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가를 런던 현지에서 보도해준다(The Gospel According to the Olympics).

(3면으로 계속)

## 아프리카 ‘유아사망률 최다’ 오명탈피

### 이코노미스트, 저출산·보건정책 강화 정책 보도

전 세계에서 하루에 4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사망한다. 그중 3만 명이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굶주림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세계 각국의 영·유아에게 봉사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교회공동체 및 비영리 민간 선교단체들의 오래된 과제이다. 결국 지구촌에서 유아사망률 최고 대륙이었던 아프리카에서 유아사망률(child mortality)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세계개발센터(Centre of Global Development)의 마이클 클레멘스(Michael Clemens)는 아프리카의 유아 사망률 감소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유아 사망률은 5세 이하 유아 1천 명당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를 가리킨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검은 대륙이라는 정형화된 이미지로 굳어진 아프리카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다. 바로 경제 개발 도상에서 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지구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African Child Mortality: The Best Story in Development).



아프리카가 유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케냐 나이로비 사무실의 가브리엘 데모비네스(Gabriel Demombynes)는 아프리카의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16개 나라에서 2005년부터 유아 사망률이 감소했으며, 12개 나라는 유아 사망률이 1년에 4.4%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4.4%라는 수치는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기간 동안 유아 사망률을 2/3로 줄이고자 선정된 수치이다. 세네갈, 르완다 그리고 케냐에서는 연간 8% 이상 감소하기도 했는데, 이는 10년 안에 유아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유아 사망률의 감소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가뭄 최악...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7면

특별기고 노봉린 박사



13면

이슬람 세계 뉴스 전호진 박사



16면

제7차 세계한인선교대회 2016년에 다시 만납시다!

# 담임목사 청빙

Texas 주 Houston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는 복음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 격

1.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
2. 남침례교단 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M. Div학위이상)
4. 목회 경력 5년이상 되시는 분
5. 이중 언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는 분
6. 미국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성장과정, 목회동기, 가족관계, 신앙관, 등)
3. 학위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4. 목사안수증명서
5. 최근 설교 CD혹은 DVD 2회
6. 최근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7. 본교회 목회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서
8. 추천서(2인)

## 제출기한

2012년 8월 31일(당일도착분에 한함)

## 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주소: 9560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홈페이지: http://www.hnbc.org  
Tel) 713-722-0773, Fax) 713-722-8929 e-mail) hnbcoffice@gmail.com



▲ 분당

▲ Children 재플

▲ 체육관

▲ Youth 재플

본교회는 7 acres(304,920 sq ft)의 부지위에 54,000 sq ft에 달하는 4개의 건물(Sanctuary, Gym, Education, Office build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론 올림픽 Spirit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 30차 하계 올림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205개국에서 온 10,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자국의 자존심과 영광을 위하여 각 종목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7월 27일 개막하여 8월 12일까지 3주간 동안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TV와 인터넷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섭씨 35도가 넘는 아열대 기후도 올림픽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열기에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메달을 확보할 때마다 선수, 코치, 응원단, 가족과 그 나라의 국민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TV중계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뉴스미디어는 연일 올림픽의 소식과 함께 메달 순위를 알려줍니다.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 올림픽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모여 메달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올림픽은 언제보아도 흥분됩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의 다양한 게임들 중에 단 몇 초 만에 승부가 결정나는 것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또한 한순간에 승패가 뒤바뀌면서 시비가 엇갈리어 선수들이 기뻐하는 것과 허탈해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올림픽에 오기까지 흘렸던 수많은 밤의 노력과 연습의 땀방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능 올림픽선수촌에서 선수들이 땀으로 흠뻑 적은 운동복을 짜면서 “땀을 흘린 만큼 보상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올림픽을 위해 2년 동안 TV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초콜릿도 끊고 오직 운동에만 전념했다는 선수의 고백을 들으면서 모든 선수들이 대단해보였습니다. 올림픽 메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온 선수들의 삶은 고독한 훈련과 절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메달과 성적을 떠나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선수들 못지않게 각국의 코치, 감독들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각 나라마다 메달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의 리더들을 영입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양궁의 단체전 4강에 오른 국가(미국, 이태리, 멕시코, 한국)의 사령탑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올림픽에서 한국인의 난공불락이었던 양궁을 한국인 감독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정상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써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정상의 자리는 언제든지 노력하는 자들에 의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올림픽게임보다 더욱 치열한 생사가 걸린 영적전쟁 속에서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스피릿을 통해 영적인 삶에 몇 가지 교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기량을 위해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내 속에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딤후4:7; 고전9:24-27). 둘째, 리더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령탑인 하나님과 코치 성령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팀원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팀원의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경기법칙(rule)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합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도 실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한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순간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경기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는 승자들에게만 메달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고전10:31) 위해 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Kingdom Spirit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 가뭄 최악...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 월드, 미 농무국 창설 150년만... “지구촌 식량위기로 확산” 보도

세계최대 곡물수출국인 미국이 50여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으면서 식량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옥수수 수출 50%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미시간 주에 걸쳐 29개주, 1,300 카운티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닥쳐 논과 밭 바닥이 짙게 갈라지고 있다. 또한 대두 값 역시 사상 최고이며 밀을 포함한 국제 곡물 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기상청과 농무국은 “가뭄이 10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국제곡물시장에는 투기세력까지 판칠 조짐이다.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조차도 이번 가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구는 짙 벌어진 채로 해갈만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말라붙은 대지를 적셔줄 수 있는 은총은 하늘로부터만 가능하다.

“반쯤에 마른 풀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단비만을 기다리는 미국 농민들의 심정을 월드(World)지는 커버스토리로 적나라하게 보도해준다(Praying for Rain Our Parched Land: Farmers contemplate mowing cornfields, water reservoirs are sinking, and crop prices are skyrocketing as the United States swelters through its worst drought in a half-century).



“뚝 프랭크는 바빠 팔라버린 옥수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만 봐야 했다. 올해 9세인 톰은 미국 인디애나주 와와카의 포트웨인에서 평생을 농부로 살았다. 열다섯 살 시절, 그는 아버지와 함께 겪었던 1936년

지 않다. 지구온난화로 속출하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에 총성 없는 ‘식량 전쟁’의 서곡이 울려 퍼지는 분위기다.

미 해양대기관리처(NOAA)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미국

따라서 농부들은 교회로 가서 기도만 드리고 있다. 스프링 쿨러를 돌리기에 보존되어 있는 저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에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인공으로 만든 관개 시설조차도

들어가는 농산물의 또 다른 적은 바로 말라붙은 대로 붙은 나무와 초원이다. 성냥 불만 대어도 확 번지는 불길 앞에 그나마 수확을 앞둔 농작물마저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번 가뭄의 최대 피

## 26개주 1000여 카운티 “자연재해 지역” 선포 옥수수, 콩, 밀 값 뛰면 다른 품목도 연쇄 상승

의 대가뭄을 떠올렸다. 수십년 간 크고 작은 가뭄이 있었고 1988년에도 기록적인 가뭄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올 1-6월 포트웨인의 강수량은 11.01인치. 최악의 가뭄이라던 1936년의 같은 기간 11.67인치의 기록도 깰다. 지역TV인 채널15에서 그는 “며칠 안에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얼마간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을 텐데, 하늘을 보니 가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늘에는 여전히 태양이 이글거렸다.

세계의 식량창고인 미국이 대가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가뭄으로 옥수수와 콩(대두)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다른 농산물 가격도 잇따라 뒤흔들릴 기세다. 국제사회에서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에 이어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조어) 위기마저 도래하고 있다는 경고가 흘러나온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남미의 곡창지대에도 가뭄이 극심해 밀과 콩 작황이 예년 같

에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55%에 달한다.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 통계상 국토의 58%가 말라붙은 1956년 이후 56년 만에 찾아온 대가뭄이다. NOAA는 지난 6월을 통계가 시작된 1895년 이래로 14번째로 덥고 10번째로 건조한 달로 기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6개주 1000여개 카운티를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한 상태다.

옥수수와 콩, 밀은 흔히 세계 3대 작물로 불릴 만큼 국제적으로 중요한 농산물이다. 보통 옥수수와 콩 가격이 뛰면 다른 농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자들은 농산물 가격 상승을 처음에는 채소 코너에서 접하지만, 이내 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코너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옥수수와 콩 등 곡물을 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식용성 기름과 두부, 면류, 빵류, 유제품 등 각종 가공식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애그플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다.

동작을 멈추고 한바탕 지나가는 소나기라도 흠뻑 대지를 적시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divine relief)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실제로 시라큐스의 한 농촌에는 106명만의 주민들만 거주하고 있지만 지난 6월 버켓교회에서 열린 ‘특별 가뭄 기도회’에만 60명 이상의 농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을 정도이다. 대지가 짙게 입을 벌리고 갈라질 정도로, 입을 벌리고 있을 정도로 타

해계층은 미국 농부들이 아니다. 농부 입장에서 말라죽는 농산물을 보면서 타들어가는 농심이야 어쩔 수 없지만, 미국 농부들은 대부분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확보험에 가입해 있다. 미 의회의 201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확면적 기준으로 83%의 옥수수, 84%의 콩, 86%의 밀이 수확보험에 들어있다. 미국 농부들은 그해 농사를 망쳐도 다음해 다시 농사지를 수 있도록 대부분 보험금을 탄다.

(3면으로 계속)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8(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 런던올림픽, 선교올림픽으로 거듭 난다!

(1면에서 계속)  
메달라인 밌스(M Mims)는 24년 동안 올림픽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녀는 먼저 런던올림픽이 4년 전 베이징올림픽에 비해 "선교의 자유와 다양한 복음 전도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그녀는 4명으로 구성된 미국 올림픽 채플린 중 1명으로(각각 2명의 남성과 여성), 15개 나라에서 온 채플린들과 매일 예배와 일대일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밌스는 또한 직접 올림픽에 참가해 미국에 금메달의 영광을 가져다주기까지 했다. 즉 1986년 멕시코 올림픽, 800미터 중거리에서 우승한 메달리스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노하우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어린 선수들에게 조언과 기도를 해주며, 예배

나 모임과 같은 공식적인 모임에 가는 것을 버거워하는 무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

밌스는 또한 다른 골드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메달을 놓쳤거나 메달을 쟁취한 무신론자들에게 다가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만나는 운동선수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기회,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밌스와 같은 올림픽 채플린들의 사역이 선수들이 기거하는 올림픽 빌리지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선수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선교 단체들 중에서 예수전도단(YWAM)의 사역이 단연코 두드러진다.

"Forever 2012"라는 주제로 2년 전부터 준비해온 동 전도단은 이미 2,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여기에 국제성서교회, 선교네트워크, 위클리프성경번역 선교회 등 각종 단체에서 온 2,000명 이상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수전도단은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 때부터 6가지 중점 선교 전략을 설정해 일생에 한 번 오는 복음 증거의 기회를 최대한 놓치지 않고 있다. 먼저 예술(드라마, 음악, 미술, 인형극), 일반 선교와 봉사(통역, 경비, 쓰레기 처리), 기도, 사회정의(무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운동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년 영역을 설

정해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전도단의 사역은 8월 12일 끝나지 않는다. 바로 런던과 같이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는 영국 도시 지역교회들과 함께 하는 사역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영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봉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런던올림픽은 단기 선교기간이고 영국 지역교회들의 갱신과 부흥은 장기 선교인 셈이다.

국제평신도선교회(Lay Witness for Christ International, LWCI) 역시 예수전도단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랍 리스(R Rees)는 LWIC의 영국 책임자로, 19개 나라에서 초대받은 올림픽 채플린으로 올림픽 선수촌 안에서 영국 지역교회들과 함께 선수들을 위한 사역에 열중하고 있다.

## 새소망 칼럼

### 삼위 하나님의 은혜받고 평안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는 권면(갈 5:22, 기쁨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임으로)과 동시에(빌3:1, 4:4)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과 평안을 구하는 완벽한 형태의 축도를 했다(고후13:11-13, 갈6:16, 빌 4:23).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고 힘을 얻고 위로 받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사는 길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있다.

은혜(grace)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발적이고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선물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은혜는 보통 일반은혜와 특별은혜로 구분한다. 일반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서(마5:44-45, 행14:16-17) 세상 보잘 것 없는 권선징악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롬13:1-4). 특별은혜라 함은 인간의 죄됨과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해 인간에게 값없이 사죄와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서(롬3:24, 엡2:8) 구원 및 은사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은혜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은혜를 단순히 하나님의 관용으로 거쳐 주어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자발적이고 무죄한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인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지 않았다면 은혜는 발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으로서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임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그 분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값이 대가 가 될 것이다(롬4:4-8).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율법의 행위와 반대된다(엡2:8-9).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롬 3:24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하였다. 은혜는 희랍어로 "카리스"인데 이 말의 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우리가 삼위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힘을 얻고 위로 받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천사가 방문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 할지어다 눅1:28).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겸손과 순종뿐이다. 약4:6에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했다(잠30:34, 벰전5:5). 삼위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리스도(행4:30) 성자하나님, 성도 간에 교통케 하시는 성령하나님을 의미한다. 모조로 모든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고후13:11)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의 삶을 실천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의 기쁨과 온전케 됨과 위로와 성도끼리의 화해와 일치 평화를 누리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평안한 삶을 누리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은혜를 받아야 영육 간에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은혜를 원어로 카이로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유쾌하게 된다", "행복하다"는 것이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행3:19).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히4:16). 히4:16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였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가? 은혜의 보좌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예배당)을 말한다.(왕상9:3) 성전 출입을 자주하고 삼위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 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바란다. 은혜 받으면 장수도 잘되고 얼굴도 젊어진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도 맑고 뱀속도 맑고 말씀도 아름다워진다.



## 아프리카 '유아사망률 최다' 오명탈피

(1면에서 계속)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의 유아 사망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정도 감소했으며, 이는 1980년대 1년에 3% 감소했던 중국의 감소율보다 더 빠르다.

1985년에서 1990년까지 그리고 1990년에서 1995년까지 각 5년 동안 유아 사망률이 37% 감소했던 베트남의 사례가 유일하게 아프리카 유아 사망률 감소세와 비견될 수 있겠지만, 베트남의 사례는 세네갈과 르완다에 미치지 못한다. 르완다의 유아 사망률은 2005년에서 2006년,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세네갈의 유아 사망률은 2005년 121명에서 2010년 72명으로 줄었다. 인도는 이만한 유아 사망률 감소세가 나오기까지 25년이 걸렸다.

이러한 유아 사망률 감소 추세가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아프리카에서 큰 나라나 작은 나라, 무슬림 국가나 기독교 국가 할 것 없이 유아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베닌이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일반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는 지역에서 유아 사망률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출산율(birth rate)이 감소하는 나라들이 가난과 높은 출생률에서 가난 탈피와 낮은 출생률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세네갈과 에티오피아 그리고 가나는 출생률과 유아 사망률은 함께 감소했지만 케냐와 우간다의 유아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출생률의 감소는 정체를 보였다. 라이베리아는 출생률과 유아 사망률이 높지만 나미비아와 레소토는 유아 사망률과 출생률이 함께 낮았다.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다른 요소는 경제 성장과 공공 보건 정책이다. 모기와 벌레로부터 잠자리를 지켜주는 모기장은 말라리아 감염을 막아 주어 유아 사망률을 낮춰 준다.

에티오피아, 가나, 르완다 그리고 우간다는 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GDP가 연간 평균 6.5% 성장했다. 반면 짐바브웨는 GDP가 하락하면서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유아 사망률은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가난의

탈피가 좋은 영양 상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대는 더 민생적이고 경제 정책과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려는 정부의 의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 증대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GDP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라이베리아는 유아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 세계은행의 데롬비네스는 유아 사망률의 기적적인 감소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케냐의 영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1세 이하의 영아 1천 명당 사망하는 아기의 수) 감소세는 아프리카에서 최고 수준이다. 케냐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연평균 4.8%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부정선거 시비로 끔찍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케냐의 영아 사망률의 감소에는 다른 요소들도 있다. 케냐에서 2003년 모기장을 사용하는 가정이 8%였지만 2008년에는 60%로 증가했다. 사실 케냐의 영아 사망률 감소의 절반 정도는 모기장 사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의 데롬비네스는 말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유아 사망률의 큰 감소는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기장과 같은 구호 물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데롬비네스는 지원을 받은 마을에서 유아 사망률 감소가 그 국가 전체의 감소세보다 더 높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원조가 유아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더 좋은 정책과 더 나은 정부, 새로운 기술 등이 함께 어울려서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난과 질병이 끝나지 않는 대륙,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펼치는 교회공동체나 선교단체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민주주의나 경제개발정책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모기장과 같은 생명의 선물을 오래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빠른 속도로 이러한 오명을 벗어버리고 있다고 세계개발센터의 클레멘스는 말했다.



## 가뭄 최악...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2면에서 계속)  
결국 미국 가뭄의 최대 피해계층은 전 세계의 도시 저소득층이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도시 저소득층은 인스턴트 식품을 갈내할 수밖에 없다. 농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가구수입의 상당액을 식료품 구입에 쓰기 때문에 가뭄과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2007-2008년의 흉작에 따른 곡물가 폭등은 이후 30여 개국의 식량폭동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꼽히는데, 올해 미국의 흉작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경은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던 또 한 사

람 즉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준다. 3년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이제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된다. 이 장면을 기억하며 훗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옥수수나 콩, 밀 농

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처럼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은 창문을 열고 비를 쏟아주었다. 하늘 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기적만이 마라 타들어가는 대지를 적셔줄 수 있다.

매일 기도회와 매일 정기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일시: 2012년8월16일(목, 저녁) ~ 23일(목, 저녁)  
(오전10:30, 저녁7:30) 주일제외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Tel (818) 306-4912

# 8월 정기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목사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겸임교수 /GST대표/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ORU(D.Min)

www.galmelsan.or.kr  
430-040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1동238-14  
Tel 031) 472-7212-6 Fax 031) 472-7211

www.galmelsan.com  
417-853 인천광역시강화군강도면하일리 26-3번지  
Tel 032) 937-9724-6 Fax 032) 937-9727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 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전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어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여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 영혼과 심신, 생활의 큰 영적 충전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의 불길에 정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거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 응답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초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7-2008년의 흉작에 따른 곡물가 폭등은 이후 30여 개국의 식량폭동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꼽히는데, 올해 미국의 흉작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경은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던 또 한 사람 즉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준다. 3년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이제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된다. 이 장면을 기억하며 훗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옥수수나 콩, 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처럼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은 창문을 열고 비를 쏟아주었다. 하늘 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기적만이 마라 타들어가는 대지를 적셔줄 수 있다.

영혼과 심신, 생활의 큰 영적 충전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에 정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거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초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종전목사(남서중앙교회)  
이필재목사(갈보리교회)  
송용걸목사(신천교회)  
피영민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곽주환목사(베다니교회)  
유관재목사(성광교회)

1982년에 시작된 갈멜산금식기도원은 365일 언제나 기도성회가 있으며 매주 목, 금, 토요일은 철야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재 갈멜산 금식기도원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개교회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매주간 약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과 기도에 부응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선교 : 미자립교회후원, 신학생후원지원, 경찰선교, 호스피스후원

국외선교 : 교회개혁, 건축, 사역지원  
모스크바(임국철), 우즈베키스탄(김봉성, 강필주), 브라질(강구희), 파라과이(전정섭, 박성진), 감비아(유재동), 니카르(홍사순), 멕시코(우상배), 일본(김병태), 몽골(김형중, 박승호), 네팔(이상태, 김재규), 뉴질랜드(기호장), 호주(김주철), 베트남(이영식), 인도(허승운), Hop선교회,대신세계선교회

인도선교 : 교회개혁관련지사역자후원, 사역지원  
교회: 호슬교회(데빗), 코임바토르교회(조지), 이로드교회(산토쉬) 살렘교회(임마누엘), 마드라스교회(슈레쉬), 크리스나거리교회(엘리아)

인도기도원: 타밀라두후호출

www.galmelsan.or.kr  
430-040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1동238-14  
Tel 031) 472-7212-6 Fax 031) 472-7211

www.galmelsan.com  
417-853 인천광역시강화군강도면하일리 26-3번지  
Tel 032) 937-9724-6 Fax 032) 937-9727

성교사위원품보내기  
1998년부터매년 성탄절에한국에서파송된각교단과교단단체들에게소속된2천명의해외선교사님들의가정예선교위원품을보내드리고있습니다.

www.galmelsan.or.kr  
430-040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1동238-14  
Tel 031) 472-7212-6 Fax 031) 472-7211

www.galmelsan.com  
417-853 인천광역시강화군강도면하일리 26-3번지  
Tel 032) 937-9724-6 Fax 032) 937-9727



#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찾으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교회 제 사무실에서 충전을 하다가 놓고 온 것이

니다. 그런데 참 편안했습니다. 옛날에 우체국에 가서 전보 치던 시절에도 행복했는데 왜 다들 휴대전화기라는 땅에 매고 자유를 상실한 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차를 몰고 나오는데 손목에 시계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주일 오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끝난 후 배구 연습을 하는 분들을 격려하러 파크(John D. Morgan Park)에 갔다가, 배구 한 게임을 했는데, 시계를 양복 뒷주머니에 넣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날 이후 3일간 집을 나오면 시계가 생각나고 집에 들어가면 잊기를 반복하다가 목요일에야 겨우 시계를 찾아 손목에 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도 수시로 놓고 다니고 시계도 잊어버리고, 꼬박꼬박 적어놓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당황하기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고는 적어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약속을 못 지키거나 같은 시간에 이중 약속을 해놓는 바람에 실수를 하고 사과하느라 쫓겨 매기도 자주 합니다. 그래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니까요? 건강증과 치매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친구가 전화를 할 때, "무슨 얘기가! 내가 언제 약속을 했어" 하면 치매 환자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

내가 정말 까마득하게 잊었어, 미안해" 하면 건강증이랍니다. 걱정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정신이 없어서 다른 것들을 모두 잊어버린다 해도 나의 창조자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치매 환자가 되어 하나님을 잊게 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자신이 낳은 찌꺼기를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잊지 못하는 분이십니다(사49:14-15).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

하여 거룩히 지키라"(출20:8). 우리도 나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주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하셨으니, 기도하기를 잊지 말고 사무엘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라(삼상12:23).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 푸/른/초/장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 담임)



떻게 하길 원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관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뒤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제일 먼저 양 각나팔을 불면서 제사장 앞서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그 뒤에는 군

가 되면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일곱째 날 그들이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치니,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드시고 그 터를 움직이시고 성벽을 허무셔서 출입할 수 없었던 그 견고한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 안에 있던 적군들을 흔들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싸울 생각도 상실한 채 도망가기에 급급하였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도제목 때문에 무릎 꿇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을 보기까지 하나님께 영드려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칠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고 마침내 그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보았습니다. 나이란 장군은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았고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부했지만 종들의 간청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이제 번까지 몸을 씻었는데도 신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까지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어린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드려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관해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쉽게 결단할 수는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부딪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고 유

#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6:1-7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공급한 힘으로 완악하고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처음 그들의 진로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강박한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처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영드려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여리고성의 문제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남다른 신앙의 모습은 평상시에 잘 확인되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동안 가꾸어졌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난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일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드려 기도하면 모든 역경을 극복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에 대해 말씀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2절). 여리고는 내륙으로 향하는

는 도로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의 제일 관문답게 이중의 성벽으로 둘러 쌓여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던 그들은 두려워 성문을 굳게 닫고(1절) 방비하기 위해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성을 넘겨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경험을 앞세워 방비하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더라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횃불과 향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는 힘의 열세이고, 이성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고, 경험적으로

는 결코 맞설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그들은 나약하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 현상에 관해 말할 수 없게 만듭시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불확실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더욱 자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드려 자신의 처지에 관해서만 낮고 두려우니 기도를 끝내지 말고, 이미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제가 어

사과 백성이 돌라고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보다 정확하고 다수의 여론보다 우수하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은 밤까지 고민했던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최첨단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주의 전을 찾고 영드려 기도하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는 의아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학보다 더 뛰어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일이 되도록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일과 복잡한 인간관계의 일도 하나님께 영드려 기도하면 뛰어난 지혜로 그 일의 구체적인 해결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전혀 예기치 못한 일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고 순응하

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영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깊은 밤에도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들려주시고 역사해주시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다릴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쉽게 결단할 수는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부딪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고 유

**입(Ba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석 세미나!**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저자 및 등장 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바레복음의 길아미 해설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인본을 제공해 줄 것이다.

http://www.israela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 입아미 세미나 개최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때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성전 의제사의 식을 까지도 알버튼 헌을 토대로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공금증이었던다면 이제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일 목사

- 후신신대원 총원
- 예루살렘대학 성경지리 역사학과 석사
- 현세이브 대학 Ph.D 과정
- 현세이브 대학 겸임목사
- 현한국어사 연구소 연구위원
- 현이스라엘입아미카데미 대표

**SEOUL 서울국제도서전**

**BOOK FAIR 2012**

6. 20. - 24. COEX A/B 홀

www.sif.or.kr

•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 후원처: 서울신문, 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 서울경제라디오

• 후원처: 서울신문, 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 서울경제라디오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콜로라도 주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참사는 미국에 또 다른 소용돌이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기규제에 대한 논란이다. 총기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은 총기규제에 대한 첨예한 쟁론을 벌인다. 왜 그럴까?

미국문화를 들여다보면 미국인들은 무기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독립전쟁 때에 각자가 개인의 무기를 들고 독립전쟁에 참여했다. 서부 개척시대에는 자신이 무기를 들고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총기 소유문화가 정착되었다. 대

미국 가정은 1977년에 54%가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수치는 2010년에는 32.3%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총기참사 후 지난 20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향후 이러한 의미 없는 폭력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근본문제인 총기규제를 다시 비켜갔다. 공화당의 경쟁자 롬니는 아예 애도만을 표했다. 굳이 참사와 총기규제를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총기규제는 미국인들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며 생명을

무기이었던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살인하려는 악한 마음이 문제이다. 하나님은 아벨에게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범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추방하셨다. 창세기 9장은 사형을 명하시지만 또한 무기를 제거하는 말씀은 없으시다.

총기를 악한 물건으로 죄악시할 수 있는가? 아니 그 자체가 악한 물건이 있는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붙어 있는 물건 등은 믿지 않는다. 물건 자체에 마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악한 것도 있다. 우상은 그 목적이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으로 믿는 죄악이다. 우상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총기 자체가 악한 것인가? 성경은 무기 자체를 악하다 하지 않으셨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신앙의 완전무장을 요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

치 오늘날 흉기를 든 사람의 잔악한 횡포를 보는 것과 똑 같다(창4장). 문제는 무기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도 묵과할 수 없다. 불과 얼마 전에도 여러 가정들에서 집안에 둔 장전된 총기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의 총기오발 사고들로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한 사건들이 총기규제에 대한 논란을 불지핀 적이 있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장하여 있었다. 그는 무기로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노략하지는 않았지만 조카 롯을 공격한 그돌라멜 연합군을 기습하여 소돔과 고모라 지경의 사람들과 조카 롯을 구한다. 그는 분명히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고, 신앙의 영웅으로 기억된다.

오늘날 미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필자는 미국의 총기규제의 논란은 미국문화의 독특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총기규제의 정당성을 혹은 총기소유의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롬니가 물문교인이라고 하는데 물문교는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강 장로

**A:** 일명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물문교는 1930년 4월 6일 뉴욕 팔미라 근방에서 요셉 스미스 2세와 그의 몇몇 추종자들에 의하여 창설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세는 1805년 12월 22일 버몬트 주 쇼론(Sharon)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15세 때 어는 날 기도하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등을 보았다고 하며 자기 곁에 두 사람의 영체가 나타나 한 사람이 이르기를 '이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1823년 9월 21일 저녁 잠자리에서 천사 모로나이(Moroni: 물문의 아들)의 방문을 3번이나 받았는데 이 천사 모로나이가 요셉스미스에게 '신을 너를 통하여 선 약 간에 너의 이름이 온 나라와 방언들 사이에 퍼지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스미스2세는 다음날 아침 꿈에서 본 환상대로 살고 있는 팔미라 근처인 구모라(Cumo-rag)언덕에서 황금판과 우림(Urim)과 돌뭉치(Thummim)와 가슴판을 발견하고 이를 번역하여 물문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성경에 대하여-물문교는 4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입니다. 또한 현재 살아있는 예언자들의 말씀도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물문교의 신앙조항을 보면 "우리는 물문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성경도 믿지만 물문경도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감된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

### 물문경도 믿고 예수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라는 말씀은 바로 이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2)하나님에 대하여-물문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를 실제로 연구해보면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다신 교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본래 지금의 인간과 같고 인간은 지금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인간과 같았는데 점점 승화하여 하나님이 된 것이므로 모든 물문의 남성들은 누구든지 신격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3)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그리스도관에 나타난 물문교의 이단사상)-물문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의 성적관계에서 태어난 지상적(地上的) 산물로 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출생되었으며 우리의 말형 격이라고 하면서, 예수는 다처가(多妻家)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루시퍼의 형제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승진되었으니 우리들도 예수처럼 하나님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물문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의 대속적 죽음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믿지 않습니다.

물문교의 계명을 지키므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문교의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 총기 참사 후폭풍, 총기규제 논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형총기참사 이후에 일어나는 총기 규제 논란은 항상 미국수정헌법 2조의 벽에 부딪힌다. 헌법은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소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총기소지와 휴대는 "생명이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논쟁을 보는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1일 "총기규제는 늦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총기소지가 천부인권이라는 미국 총기지지자들의 논리를 비판했다. 사실 미국과 달리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는 총기소지를 제약하고 있다.

이번 총기난사 참사의 범인 제임스 홀스의 행적을 보면 총기규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만 하다. 미국의 총기관리에 큰 구멍이 있다. 그는 무기를 구입할 때에 인터넷을 통해 책을 주문하듯 구매했다. 4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6천발 이상의 탄알을 구입했다. 범행에 사용한 총기 역시 오로라의 한 총기판매점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했다. 미국의 총기문제는 단순한 공기총이나 사냥용이 아니라 대량살상 무기들도 구입할 수 있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다.

거는 이슈 중에 하나이다. 매 선거 때마다 총기규제는 중요 쟁점이고 피튀기는 싸움을 한다. 팽팽한 기싸움을 벌린다. 하지만 총기규제는 늘 실패한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 NRA의 영향력 때문이다. 4백3십만명 회원을 두고 있는 전미총기연합(NRA)은 버지니아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 쉬운 대답이 없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총기를 소유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양편의 주장은 다 원색적이고 접촉점이 없다. 우리는 보다 원리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어떤 도구를 악으로 여길 수 있는가? 악의 도구의 리스트에 총기나 다른 무기를 넣을 수 있는가?

전 총기소유주 대표인 Larry Pratt은 총기소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무기에 대한 기원은 성경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온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에서 나온다. 성경은 무슨 무기를 썼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아마도 칼이나 돌을 사용하였을 수 있다. 무슨

솜을 칼로 비유하셨다. 시편127:4-5은 장사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은 복되다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천사도 무장함을 보여준다.

총기소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자기방어의 정당성의 예를 든다(출22:2-3). 그래서 정당방어를 위해서 무기소유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물론 성경은 정당방어를 죄악시 하지 않는다. 악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무기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같은 칼이지만 같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칼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칼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짐승을 잡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무기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악한 사람인가 아닌가? 마음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왜 무기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살인무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들도 역시 가인의 후손들이다. 가인의 후손인 두발가인은 무기 제조자의 시조이다. 또한 라멕이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무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한 위협함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마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듣고 해석하는 exegesis를 벗어나게 된다.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정당화 하려는 isogesis의 죄를 범하게 된다.

미국의 총기소유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총기규제에는 허점이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총기소유가 아무리 헌법에 규정된 권리라고 해도 적절한 관리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총기규제만 하면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 믿는 것도 너무도 순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한 총기가 없더라도 또 다른 도구를 흉기로 사용하여 더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는 날이 갈수록 무기가 더욱 더 흉악하게 될 것이다. 두발가인이나 라멕의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잔악한 무기들이 세상에는 가득하다. 총기규제가 해답이 아니다. 총기소유가 해답이 아니다. 회개하고 거듭된 영혼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에만 이런 고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새생명선교교회 New Life Mission Church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EL.(818) 952-2449

# 창립6주년 부흥집회 및 특별새벽기도회

벌써 저희 새생명선교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며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일 밖에 없습니다. 이제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 특별새벽기도회

2012년 8월 6일(월) -11일(토) (오전 6:00-6:40)

### 감사부흥회

2012년 8월 10일(금)(오후 7:00-8:30)  
2012년 8월 11일(토)(오전 6:00-6:40, 오후 7:00-8:30)  
2012년 8월 12일(주일)(오전 11:00-12:30)

\* 부흥회 시간에 맞추어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VBS)가 개최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담임목사 김만수



강사 : 남진선 목사

한국기독교학생회(KV)간사 및 총무  
한국인터넷서브컬처 및 대표  
한국 미술업 연구소 창립위원 및 협동총무  
인터넷서브 소속교회(사우디 아라비아)  
한누리 교회 개척 및 담임목사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실라(SILA)**



실라족은 라오스 북부의 무옹하이(Muong Hai) 바로 북쪽의 구릉성의 열대숲에 거주한다. 이들은 몽골인의 특성을 지닌 티베트-버어마계 종족에 속하며,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으로 종족단위로 분류된다. 실라

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며, 일부 내용들은 이들이 거주하는 라오스 안에서의 지역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이웃한 종족들의 정보를 근거로 구성됐다.

다른 티베트-버어마계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실라족도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 북부로 이주해왔다. 이들은 몰로 언어군에 속하며, 몰로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은 8-9세기경에 중국 남부에서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9세기 초 동남아시아로 이주했다.

라오스는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의 정치적 경쟁 속에 휘말려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외세의 침입과 내전으로, 라오스 국민들은 엄청난 사회적 격동기를 경험했다. 베트남은 라오스에게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삶의 모습**

실라족과 같은 고산종족들은 농업에 종사하기도 하며 사냥도 하고 숲의 산물들을 채집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동해 다니는 농사법으로 인해 영구적 마을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고도가 높은 곳에 사는 고산종족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잘 지켜왔으나, 저지대에 가까이 사는 종족들은 이웃 마을과 제한적인 무역활동을 하게 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했다.

실라족 마을은 몇몇 집들이 모인 작은 군 집단으로 이루어진다. 가

옥들은 나무나 대나무로 대발 위에 고상식으로 지어지며, 언덕을 향해 군집을 형성한다. 거주 지역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 부근에 있다. 가옥들을 땅 위 고상식으로 짓기 때문에 가금(집짐승), 돼지, 염소 등이 집 아래 부분에서 자유롭게 왕래한다. 실라족 마을이 대체로 부족 혈통을 따라 조직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는 가족 단위를 기본적으로 한다.

라오스 북부 지방은 아편을 생산하는 양귀비가 자라는데 이상적인 기후이다. 전통적으로 부족사람들은 아편을 약으로, 현금을 벌어들이거나 물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북쪽으로 이동돼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신앙

실라족은 "정령숭배"와 "조상숭배"가 혼합된 전통 민족종교를 믿는다. 정령숭배는 자연(바람, 강, 나무, 땅) 속에 영혼이나 초자연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 이러한 자연의 영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나 병을 치료하거나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준다고 믿는다. 제사와 의식을 통해 숭배자들은 자신들을 돕도록 이러한 영혼들을 달래고자 노력한다. 조상숭배는 죽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축복, 보호, 안내를 구하는 신앙이다. 조상의 영혼들이 살아있고 이들을 먹고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말라리아, 독감, 이질, 폐렴 등이 주요한 보건상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영양부족

이 만연해있다. 유아사망률이 높으며 평균수명도 짧다. 의사 등 많은 엘리트들이 1975년 라오스를 떠났다. 이것이 새 정부에 큰 부담을 가져왔으며 마을 진료소와 약국들이 세워지고 의료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마을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들은 가끔 허브와 같은 전통적인 약재를 치료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보건상태에 많은 향상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엄청난 필요를 채우고 있지는 못하다.

1970년대에 있었던 베트남전은 라오스 북부지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상당한 수의 북부 베트남 군대 파테트 라오 공산주의자(pro-Communist Pathet Lao)들과 싸우고 있는 라오스 북부지방은 미국의 폭격기들이 폭격을 퍼부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칙필레' 사장 동성결혼 반대 표명**

일요일에 문 닫고도 점포당 매출액이 매도날보다 많은 치킨 패스트푸드 회사인 '칙필레'(Chick-Fill-A) 사장 댄 캐시(Dan Cathy)가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캐시 사장은 지난 16일 침례교신문의 인터뷰에서 칩필레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죄를 인정한다'고 돌려 말하며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성경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단위(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만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캐시 사장은 이를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우리가 당신보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잘 안다고 말할수록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며 "나는 오만하게 결혼의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계는 그를 '용기있는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캐시 사장의 용기에 칭송을 보낸다. 성경 원칙에 기초한 칩필레는 그동안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며 공격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반대 단체인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은 '칙필레는 영웅적인 기업'이라고 높게 평가했고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자이자 목사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오는 8월 1일을 '칙필레 감사의 날'로 정해 이날 칩필레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고자 제안했다.

하지만 동성애 지지자들은 '편협한 기업인'이라며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미국 최대 동성애자 권리단체인 'Human Right Campaign'의 차드 그리핀 회장은 "칙필레의 본색이 드러났다. 나라 전체는 포용으로 가고 있는데 칩필레는 과거의 해로운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차별적인 회사에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보스턴 시장인 토마스 메니노는 "보스턴은 개방적

이며 포용의 최전방"이라며 "우리 시민의 일부를 차별하는 칩필레는 보스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칩필레는 현재 보스턴에 지점을 갖고 있지 않다. 동성애자들은 8월 3일을 '전국 동성애자 키스의 날'로 정하고 이날 전국의 칩필레 지점에서 가서 동성애자끼리 키스하며 항의하자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고 있다.

칩필레는 2011년 1월 펜실베이니아의 한 칩필레 지점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한 결혼세미나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동성애 지지 단체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한 단체는 칩필레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그룹들에 3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2010년에는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며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초 노스웨스턴대 학생회는 칩필레의 학교 입점을 거부했다. 미국에서는 칩필레와 달리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런던올림픽 개막..한인 기독교계도 선교 돌입**

제30회 런던올림픽이 29일 화려하게 개막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보기 위해 주경기장 주변에 모여들었고, 올림픽에 맞춰 선교대회를 여는 한인 기독교계도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 올림픽 주경기장이 위치한 스트래드포드 역 주변에는 개막식을 보려는 각국 관광객들로 붐볐고, 곳곳에서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위한 철동 경계가 이어졌다.

올림픽 개막을 손꼽아 기다려온 관광객들은 남은 경기 입장권이라도 구하기 위해 주경기장 앞에서 장사진을 이뤘다. 관광객들은 또, 선수촌을 바라보며 자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팀 코리아'라는 대형 현수막과 함께 각 밤마다 태극기가 내걸고 전의를 다졌다.

재영 한인 기독교계도 올림픽 개막에 발맞춰 진행되는 '런던올림픽 선교대회'의 막바지 점검을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재영한인교회연합회, 재영한인 선교사회 등 16개 한인 선교단체들은 하루 종일 400



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목을 숙소 시설과 전도 집회 계획을 점검했다.

김주경 올림픽선교대회 본부장은 "영국 내 한인 교계가 올림픽을 맞아 첫 연합 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영국을 재복음화하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태권도 시범과 한국 무용, 악기 연주 등 문화 공연이 가미된 전도 집회를 준비했다"며, "올림픽 기간 내 런던 시내를 돌며 전도 이벤트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런던올림픽의 화려한 개막과 함께 영국 내 한인교회를 비롯해 스포츠 선교단체들은 올림픽을 선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애틀랜타서 '한인목사' 총기피살**

한인 목사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애틀랜타 한인언론 뉴스앤포스트가 보도했다. 뉴스앤포스트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 경찰은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애틀랜타 북동부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C(62)씨를 남편 정모(6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정씨가 심장 장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져있는 정씨를 발견하고 현장에 있던 C씨를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집안에는 아들과 딸도 있었다.

귀넷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부는 수년 전부터 남편의 목회와 어려워 생활고를 겪으면서 말다툼이 잦았다. 용의자 정씨와 면담한 애틀랜타 총영사관 손창연 영사도 "정씨 부부는 시민권자로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워 말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정씨는 목사 안수를 받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2001년 애틀랜타에 한인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 바이블(Faith Bible) 스쿨'이란 신학교를 세워 학생으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 주 법과에 있는 '페이스 신학교'의 조지 자이머 학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운영해온 애틀랜타 학교는 우리 학교의 분교인데 현재는 재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 75% '나는 기독교인', 아시안계 42%**

미국인의 75%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반면 아시안계 미국인은 42%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많은 아시안들이 이민자이며 대부분은 기독교가 소수종교인 국가들에서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미국 이민자 대부분이 기독교가 지배적인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었다.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재 미국 내 힌두교 신자와 불교 신자의 수를 합치면 유대교인의 수만큼 많다. 힌두교 신자의 경우 인도가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의 경우 베트남계 미국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중국내 기독교인은 5%에 불과한데 중국계 미국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31%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왔거나 이민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음적인 아시안계 미국인 기독교인 가운데 약 1/3이 한국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무교(religiously unaffiliated)인 사람의 비율이 26%로 미국 전체적으로 19%가 무교(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를 모두 포함)인 것보다 많다.

연구에 따르면 아시안계 미국인 복음주의자들은 비 아시안계 미국인보다 매주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경향이 있다. 몇몇 소수민족은 기독교(가톨릭 포함) 신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필리핀계 미국인의 경우 거의 10명 중 9명이 기독교인이며, 이들은 대부분 필리핀에서 영향이 큰 가톨릭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자신의 출신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선호한다.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시안과 미국인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미국 내 복음적 기독교인들처럼 아시안계 미국인 복음주의자들은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하며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동성애는 사회에서 지양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대조적으로, 힌두교와 불교 신자들은 대다수가 민주당원으로 동성애를 허용하고 낙태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특/별/기/고

이슬람국가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 교회지도자 양성(상)



노봉린 박사 (Concordia Seminary, Th.D.)

핍박에 의해 교회지도자(목회자와 평신도)가 흔들리며 분산되면 교회가 흔들리며 분산되기 쉽다. 신학교교육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면 교회가 약화되며 살아지기 쉽다. 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7개 국가가 있는데 특별히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을 학살하며 교회건물을 파괴하는 소식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많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 이슬람국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 속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초대교회 때 카타콤 크리스천들이 잔혹한 핍박을 받았던 실정에서 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4세기말 성 어거스틴 당시부터 북아프리카(Egypt, Libya, Algeria, Tunisia, Morocco) 지역에 500개가 넘는 교회교구(노회)들이 있었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활동했던 이 지역이 7세기 이슬람교의 침략으로 교회들이 이곳에서 사라져 버린 비참한 역사적 사실을 현재 특별히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다. 중동지역, 북아프리카, 아시아의 이슬람국가들은 12억의 신도를 갖고 있는 제2대 종교로 세계 이슬람화를 이루기 위하여 기독교를 핍박하는 현재 상황은 7세기 때 일어났던 이슬람교 핍박이 되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공포에 떨며 자기의 생명

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피하는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에 있는 교회생존을 위하여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때가 온 것이다. 필자는 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계속 유지하기위하여서는 먼저 그곳에 있는 교회지도자

를 속히 양성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교역자양성은 물론이지만 특히 평신도 지도자양성이 시급한 것이다. 교회지도자들이 분산되고 약화될 때 그곳의 교회는 흔들리기 쉽고 더 나가 뿌리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아세아에서 OMF선교사로 30년간(1970-2000) 신학교육사역을 해왔다. 싱가포르(1970-74), 대만(1975-89), 한국(1990-2000)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아세아 신학협회(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총무(1970-90)로 세계복음주의신학위원회(World Evan-

gical Alliance-Theological Commission) 국제총무(1990-96)로 사역한 경험을 통하여 이슬람권의 교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안을 소개하기를 원한다. 1. 급변하는 이슬람국의 상황 1. 이슬람교의 보수주의 사상의 성장

각종의 폭력적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July 28, 2012, p.34). 애급 대통령 Mohamed Morsi는 "The Koran is our law"라고 강조하였다(p.36).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즈볼라(Hezbollah) 테러단체, 가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마스(Hamas) 테러단체, 북나이지리아의 바쿠 하람(Bako Haram) 이슬람 테러단체들은 자살폭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하였다. 이러한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의 목적은 반 이슬람적인 세력(Infidel)을 멸시시키고 샤리아법(Sharia Law)을 세우는데 있는 것이다. 2. 나날이 늘어가는 반 기독교적 핍박 2012년 2월13일 뉴스위크 잡지 정면에 얼굴에 피로 덮인 예수님의 사진과 "THE WAR ON CHRISTIANS"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저자 알리(Ayaan Hirsi Ali)는 아프리카, 중동지역,

을 제거하여 세계를 이슬람화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권 선교운동은 각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선교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동지역, 북아프리카, 북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 테러사건은 나날이 심각한 사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3. 현대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도자양성의 실행 현대선교의 한 가지 긍정적인 상황은 현대기술과 매스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국가에도 매스 미디어가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한 장소(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미디어 재료를 사용하여 성경공부, 제자훈련, 영성훈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시대 로마황제(Constantine 1세)가 주후 313년 Edict of Milan라는 종교자유법을 선포하기 전에는 기독교인은 로마제국과 유대인으로부터 오늘의 무슬림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같은 심한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매스 미디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전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시대에 공산국가에 유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선교사들은 연장신학교육(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TEE)을 통하여 많은 교인들에게 성경공부와 영성훈련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매스 미디어를 통한 TEE교육이 다시 한번 필요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슬람국 12억 신도 보유, 세계 2대 종교 부상 전통문화 보전위해 이슬람 보수 극단주의 성장

이슬람교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교회와 정부(Church and State)가 분리되어 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알라신에 생의 전부를 바치며 그에게 절대 순종 (Submission)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개인의 신앙, 정치, 경제, 교육, 생활 전체를 알라신에게 바친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슬람 보수주의와 극단주의가 성장하는 이유의 하나는 20세기의 유럽과 북미 서양세계에서 기독교 전통문화를 버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비종교주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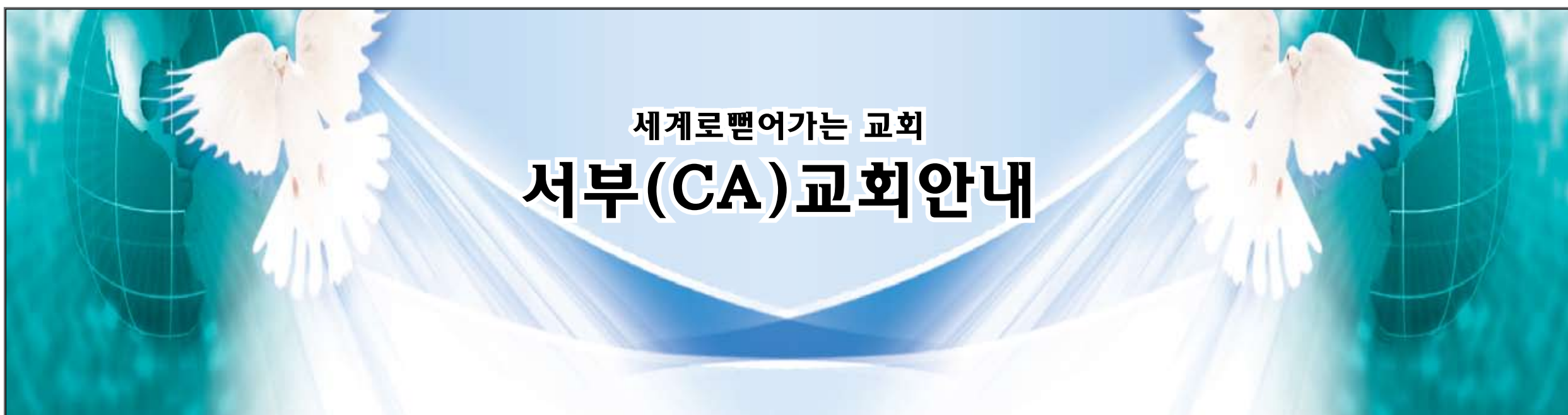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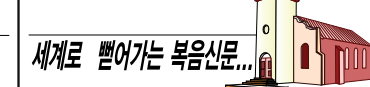


Table with 8 columns and 10 row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열린문교회', etc., and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99. "신의 언어"와 BioLogos (2)

20세기 생물학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유전자 지도(Human genome project) 작성의 총 책임자였던 폴린스가 "신의 언어"라는 책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이오로그스"(BioLogos)의 근거는 진화론이었다. 그는 "진화는 우연에 지배되는 듯하지만, 신의 관점으로 보면 그 결과는 하나하나 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것이다"라고 했다. 하나님과 창조는 믿지만 창조의 과정은 진화라고 믿는다. 이런 창조론을 우리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른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점은 성경의 권위보다 과학(사람)의 권위를 더 높은 데 두는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과학자들의 말이 그럴 듯 하면 성경을 무시하고 과학자의 말을 더 믿는다. 하나님의 역할은 영적인 부분 을 배우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는 과학(진화)이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번 칼럼은 주로 그의 성경관과 믿음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한 성경에 대한 견해를 보자.

"창세기에 쓰인 언어는 의문의 여지없이 시적이다"(p. 88). "그러나 창세기 처음 몇 장을 비롯해 읊기, 아가,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다른 부분은 서정적이고 우화적인 요소가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순수하게 그대로 기술했다고 보기는 힘들다"(p. 179). "성경에는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곳이 많고, 종교인들은 이런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옳거나 옳아도 나옴은 이야기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솔직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썩썩한 구석이 많다"(p. 211). 바로 이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사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진화)을 성경 역사에 끼워 넣는

다. 이것이 폴린스가 주장하는 바이오로그스 즉 유신론적 진화론의 정수다.

폴린스는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를 시나 설화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 1장의 언어

바꿀 수는 없다. 창세기 1장은 산문으로 된 역사 기술이다.

과학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론 진정한 과학은 성경과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는 과학이란 것은 진정한 과학인 실험과학이 아니라 창조나 진화를 다루는 역사과학을 말한다. 폴린스는 신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과학자인 호킹의 책 "시간의 역사"를 인용한다(p. 80). "우주가 왜 꼭 이런 식으로 시작되어야 했는지, 우리 같은 인간을 탄생시키려는 신의 의도적인 행위로부터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폴린스가 인용했던 과학자 호킹은 최근에 신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과학자의 말을 의지했던 폴린스의 신의 존재에 대한 근거는 불과 몇 년 만에 사라져버리고 없다.

우리는 폴린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자주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결론까지도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자들

또 폴린스의 다음과 같은 단골 질문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창조론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많은 젊은이가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대단히 설득력 있게 자연계를 가르치는 과학을 거부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을까?"(p. 180) 진화론이 등장하자 영국 교회는 폴린스처럼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인가? 영국 교회의 철저한 몰락은 폴린스의 말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폴린스뿐 아니라 누구나 말하듯이 교회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폴린스가 말하는 과학인 진화는 거짓이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아담의 죄 이전(인류 진화 이전)에 죽음이 있었어야 하므로 사람의 죄와 죽음은 상관없고 예수님은 필요 없게 된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며,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폴린스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 하나님과 창조는 믿지만 창조과정은 진화라고 믿어 유신론적 진화론 받아들이 영국 교회는 결국 파멸



### 과학이나 성경이나?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다른 타협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 문제다.

를 분석해보면 창세기 1장은 시가 아니라 99.99% 산문이다(DeYoung, Master Books, 2005, p. 168).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명백한 산문을 시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수억 년의 진화론적인 지구 역사를 사실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과학의 권위를 성경 위에 놓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을 진화론 역사에 맞추기 위해 99.99% 산문을 시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창세기가 시나 설화였다는 말이 평신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폴린스는 자기 취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설명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믿음이 사실을

일까, 욕되게 하는 자들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이 자연에 관한 것에도 기초할 수 있을까?(p. 178) 이런 저명한 과학자들의 위협적인 질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머리를 숙였다. 폴린스나 거기에 동조하는 신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가져온다: "어떤 이성적 근거로 보더라도 젊은

지구 창조론은 과학에서나 신학에서나 지적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p. 180).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과학은 검증 가능한 실험과학이 아니며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세워진 타락한 이성의 산물일 뿐이다.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진화 역사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믿음으로 조작된 허구의 시대이다. 각 지질시대에서 출토된 석탄의 방사성 탄소 양이 동일하게 측정된다는 사실이 진화 역사가 거짓임을 거듭 확인해 준다. 진화론자들이 거짓이 드러날까 무서워 오늘날 화석의 연대 측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남긴 과학자라해도 영적으로 그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성경이 아니라 C.S. 루이스를 통해 하나님이 무신론자였던 그를 부르신 것이라라. 그러나 그의 영적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되여가는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의 반성경적인 주장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도록 그의 잘못된 말들을 교정하고픈 마음이다. 아쉽게도 그는 진화론에 눈이 가려 그 유명한 프로젝트를 통해 신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진화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 세상 70억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모두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다. 대부분 자기 세계관이 가장 훌륭하다고 믿는다. 폴린스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서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1:20-21).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성품칼럼 (36)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성품리더십(4)-긍정의 리더십

긍정적인 태도(Positive Attitude)란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리더십의 선택은 공동체에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생각과 말,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긍정의 리더십을 소유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더 큰 긍정을 날게 하지만, 부정적인 리더십을 소유한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불안감을 전염시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우리 세대가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발견중의 하나로 '인간이 생각과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인 성품으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분명한 예를 삶을 통해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 1905-1997)이지요. 그는 인간의 극한을 넘나드는 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수용소에서 죽음의 공포와 가혹한 학대를 경험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어떤 이는 희망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겁에 질려 동물처럼 삶을 연명했지만, 빅터 프랭클은 날마다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수염을 깎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 매순간 삶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두렵고 지독한 환경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다. 나치수용소에서의 일들을 글로 남기겠다고 결심한 그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수용소에서의 삶을 회고하며 남긴 저서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과제이다"

긍정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어 행복한 성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긍정의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촉매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삶 속에서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함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안 될 거야"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긍정적인 언어라며 긍정적 태도의 성품을 강조했습니다.

현시대 우리 아이들의 태도에서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지식을 쌓는 것에만 열안이 되어 성품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성품의 위력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들이 고난의 삶을 승리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부정의 생각은 작게 표현하고, 긍정의 생각은 크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어렵고 힘든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좋은나무성품학교의 'STOP! THINK! CHOOSE!' 긍정의 법칙을 기억해 보세요. 'STOP!' 행동하기 전에 잠깐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THINK!' 여러 가지 방법과 행동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CHOOSE!' 가장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정의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STOP' 희망을 선택하는 긍정의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긍정의 리더십이 세상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 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안내

<b>덴버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백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맨햄교회</b>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보스완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살츠버그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시애틀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시카고에브림교회</b>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알란사 재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앵커리지델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앨파스델린교회</b>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큰루터교회</b> 담임목사: 나경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타코마사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렘파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아가페선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에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하와이 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 “2016년에 다시 만납시다!”

##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대단원의 막 내려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 구호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개막기사 1394호 1면 참조). 4천여 명의 주의 일꾼들이 모여 7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핫트 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주의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 땅끝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고 그 내용이 이번 대회에 채택된 핫트 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선언문 공약에는 회복해야 할 성경적 기초와 사도적 원리 7가지를 발표 했는데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선교 △약한 자를 사랑하는 선교 △고난당한 자를 위한 선교 △정체 없는 나그네를 위한 선교 △죄인을 위한 선교 △종말론적인 선교 △순교적 선교 등이다. 참석자들은 7가지 사도적인 선교 원리로 돌아설 것을 서약했다.



찬양하고 있는 참석자들

## 4천여 참석자, 한마음으로 '땅끝선교' 도전

○..첫날 개회예배와 첫날 집회가 성황리에 열렸던 이번 선교대회의 둘째 날 새벽기도회는 안영섭 목사(KWMC 부의장)가 사회를, 김경일 선교사(우즈베키스탄)가 기도했으며 나광삼 목사(공동대회장, 큰무리교회)가 '기적지 땅시다(삼상 17:45-49)'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병구 선교사(일본)가 축도했다.

한 격려사를,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Desiring God Ministries)가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요10: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김준원 목사(공동준비위원장)가 축도했다.

파이퍼牧사는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유는 그분께 속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서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며 "예수님께 속해야 할 자들이 남아있으며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날 새벽기도회는 제석호 목사(KWMC 부의장) 사회로 시작, 기도 송축서 선교사(캐나다), 사본 장의 바이올린 특주를 들려주었고 서준석 선교사(아이티)의 선교보고가 있었다. 이어 고기흥 목사(원광교회)가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축도했다.

저녁 선교대회는 김광태 목사(시카고선교협의회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장춘원 목사(KWMC 부의장) 기도, 허영희 선교사(프랑스), 장종일 선교사(우크라이나), 정훈재 선교사(호주)가 선교보고를 한 뒤 김재규 목사(대신경회장)가 선교사 격려사를 했다. 이어 서삼정 목사(공동대회장, 아틀란타제일장로교

회)가 '부흥의 불(느 8:5-10)'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안성기 목사(KWMC 증경의장)가 축도했다.

서삼정 목사는 "선교가 일어나고 목회자 가능해지려면 부흥의 불이 임해야 하는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 임하기의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며 "불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임하게 되며 복음도 성령으로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날 새벽기도회는 지용주 목사(KWMC 부의장)가 사회를, 이휘재 선교사(러시아)가 기도, 박헌남 선교사(필리핀)가 선교보고를 했으며 호성기 목사(PGM 대표, 필라델피아교회)가 '평신도 전문인 선교동력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저녁집회는 조일구 목사(KWMC 부의장)의 사회로 시작, 장동일 목사(KWMC 부의장)가 기도를, 박명하 선교사(온두라스), 정금태 선교사(파라과이), 이시은 선교사(캄보디아), 이사라 선교사(멕시코)가 선교보고를, 여성삼 목사(기성 선교위

원장)가 선교사격려사를 했으며 로렌 커닝햄 목사(YWAM 총재, 열방대학 총장)가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커닝햄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사람을 통해 열방을 지으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열방의 지경을 정하셨다"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가 되어 하신데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티, 강국 대한민국은 아이티 산업을 통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석희 목사(KWMC 사무총장)의 인도로 선교소명자 초청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집회는 최은종 목사(KWMC 부의장)의 축도로 마쳤다.

○..다섯째 날 새벽기도회는 윤정용 목사(KWMC 부의장)의 사회로 시작, 신재혁 선교사(C국)가 기도를, 정택권 선교사(이스라엘)가 선교보고를 했으며 조예환 목사(부천갈보리교회)의 '너는 생각하라(전 5: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뒤 박환석 선교사(캐나다)가 축도했다.

이어 드려진 파송예배는 김영진 목사(KWMC 부의장)와 조영길 목

사(GKYM)가 기도를 했으며 장영춘 목사(공동대회장, 본지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가 '땅끝 선교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날 모인 참가자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장영춘 목사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며 "인류역사상 제1호 선교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교의 시작을 하셨듯이 마무리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교를 위해 나아지신 예수님처럼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에서 낮아지고 인내해야 한다"며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순종하는 선교의 승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조동진 목사(KWMC 명예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제7차 세계한인선교대회에 참가한 찬양단원은 남가주권사합창단, 시카고 연합성가대, 글로리아 선교회합창단(퀸즈장로교회)이 참가했으며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저녁집회 때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교사들로 구성된 선교사연합성가대(지휘 송규식 목사)가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으며 <16면으로 계속>

### 목회서신

## 미래를 그리는 사람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담임)

브라질의 축구 선수 가리사는 소아마비로 지적 장애를 앓았습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6cm 나 차이가 났고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왼쪽 다리는 안쪽으로 휘어진 기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축구경기를 구경한 후에 나는 꿈을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축구를 하고 축구선수가 되며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의사의 충고, 친구들의 무시 그리고 내면에 있는 의심도 그 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선포했던 것처럼 축구를 하게 되었고 국가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월드컵에 세 번이나 참가했으며 펠레 이후 가장 뛰어난 축구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했던 연구결과에 따르면 3%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가 97%의 사람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3%의 사람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성공이 주어진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인종, 학력, 인맥, 재산 등과는 상관없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미래를 그렸는데 미래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화상을 그렸고 미래의 목표에 대해 문서를 만드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는 미래를 그리는 사람 즉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뀌어 얘기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를 온전히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땅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거울 삼아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그리고 이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놀라운 미래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현실로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월드미션선명회합창단 미주 순회공연 첫무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단원들

##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

###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첫 무대, 여성 순복음교회서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2012 전미주 순회공연'이 25일 오후 7시30분 LA 여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첫무대의 막을 올렸다. 본 콘서트는 1부 은혜의 성가, 2부 희망과 나눔의 초대, 3부 즐거운 노래와 찬양, 4부 한국 민요와 안무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진유철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환영사에 이어 선명회합창단원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는 나의 힘'이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등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를 들려주었으며 2부 순서로 진행된 희망과 나눔의 초대에서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실상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며 일대일 결연을 호소하기도 했다.

3부에서는 뮤지컬 메들리, 벨라판타지아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은 단원들은 4부에서는 한강수 타령, 진도복춤, 아리랑 등 흥겨운 민요와 안무로 참석한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한 후 오후 8시 콘서트의 막을 내렸다. 특별히 테너 안두석씨와 바리톤 정재혁씨의 특별 출

연이 있었다.

월드비전은 창설 당시부터 미국에서는 월드비전으로 소개됐지만 한국과 중국 등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는 '빛을 알린다'는 의미의 선명회로 소개되기도 했다.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은 월드비전 창시자인 밥 피어스 목사와 환경적 목사에 의해 창단된 비영리 기독교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고유한 어린이 합창단이다. 이 합창단의 시조는 6.25 동안으로 태도 고아가 된 어린이들로 구성, 이동됐지만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온전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음악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펼쳐져 매년 순회공연을 벌이고 있다.

선명회 합창단원 30여명은 초등학생 3명을 포함한 중학생으로 구성됐다. 전 미주 순회 첫 공연을 마친 한 단원은 "우리가 노래함으로 어린이들이 살 수 있기에 기쁘요. 그런데 합숙훈련을 통해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가끔은 힘들기도 해요"라고 말했다. 선명회합창단 미주공연은 8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성자 기자)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b>		<b>가림과 영광교회</b> 담임목사: 정희수 교목사: 케미컬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사제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토) 오후 8:30(일)	<b>낙원장로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00 성도예배: 오후 8:45			
<b>뉴욕셋째마녀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사제기도회: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45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택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월-토) 주일예배: 오후 8:0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전 8:00	<b>뉴욕순복음안대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일)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계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전 8:45(월-토)	<b>뉴욕주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전 8:00(일)
<b>뉴욕효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문혁호 원로목사: 방지환 1부일예배: 오전 7:15 2부일예배: 오전 8:30 3부일예배: 오전 10:15 목회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00(일)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목회예배: 오후 8:00(일)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메디니교회</b>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일)	<b>어린이교회</b>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유니온연합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계열 목회예배: 오전 8:00 목회예배: 오전 8:00 목회예배: 오전 10:45 목회예배: 오후 2: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곤 주일예배: 오전 12:30 목회예배: 오전 6:00 목회예배: 오후 8:00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미영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일)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985-0009 N.Y.: Tel. (718)888-6400 Fax: (718)888-007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985-0009 N.Y.: Tel. (718)888-6400 Fax: (718)888-0074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b>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한병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브라질 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병현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병관 목사 목회예배: 오전 8:00 목회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



동부교계 기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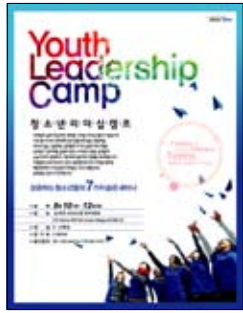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목양장로사역 제 13차 컨퍼런스가 9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린다.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오는 8월 10일(금)부터 12일(주)까지 고교생 대상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갖는다.



▲문의: (201)767-7728

생각하라! 'The Grace of God'

뉴욕교협 주최 '2012 청소년할렐루야대회' 성료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주최한 '2012 청소년할렐루야대회'가 'The Grace of God(하나님 은혜)'이란 주제로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개최됐다.



2012 청소년할렐루야대회에서 Fuleo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대회에서 감사 James Fuleo 목사(New Life Fellowship Church)는 첫날 "Th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will be first"(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마 19:16-20:16)라는 제목으로 부자 청년의 어려움과 포도원 일꾼에

대한 삶 분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

용에 대해 설교했다. 설교 후 Fuleo 목사는 참석 청소년들에게 메모지를 나눠주며 기도제목을 써서 기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하는 사람은 강단 중앙으로 나와 기도하도록 하고 각 교회 청소년 담당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

이날 등대교회 찬양팀의 헌금 특별 찬양과 뉴욕중앙장로교회 마크박 목사의 봉헌기도가 있었으며 축도는 교협서기 현영갑 목사가 맡았다. 교협산하 청소년센터 사무총장으로 이번 행사 총준비위원장인 김현돈 목사는 각 교회에서 선발된 자원 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였고 감사인 Fuleo 목사가 행사준비과정에 함께 해 예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한 것 같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여성목회자협 제4기 회장 취임식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면을 보라' ...초대교회처럼 화목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4주기 이취임식 예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4주기 이취임식 예배가 지난 30일 할렐루야뉴욕교회(담임 이광희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이미선 목사는 전임 회장의 희생과 지도력을 치하하며 "제 4주기 표어를 '사면을 보라'로 정했다.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 소외되고 힘든 많은 여성목회자들이 본회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초대교회처럼 만나면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은혜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박정희 목사, 성경봉독 김신영 목사, 설교 김금옥 목사(직전회장), 특송 이사론 집사, 봉헌기도 김정숙 목사, 인사 회장 이미선 목사, 축사 김종훈 뉴욕교협 부회장 최혜식 뉴욕목사회 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금옥 목사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눅14:15-24)라는 제목으로 "여성목회자협의회는 섬기는 단체"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여성 목회자들이 되자."

4년 동안 든든히 세워졌으니 앞으로 더욱 큰 역사를 이룰 줄 믿는다"고 전했다.

제 4기 임원 및 분과위원장, 지역협동총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 이미선 목사 △부회장 전희수 목사 △총무 은혜 목사 △서기 김신영 목사 △부서기 권캐더린 목사 △회계 김정숙 목사 △부회계 김희순 목사 △감사 이화진 목사, 남지현 목사 △분과위원장: 목회-정경희, 선교-양승인, 교육-배임순, 사회-조상숙, 상담-백금숙, 음악-김연숙, 홍보-전광희, 기도-장만자, 섬의-이승진, 친교-김순자, 복지-박영주, 회원관리-오명희, 홍보편집-김신영, 박은희 △지역협동총무: NY-이화진, NJ-박정희, CT-김명숙, PA-양승인, MD-최현림, GA-정사라, CA-백석영.

한편, 이날 1대 회장 김금옥 목사와 오명희 목사에게 공로패를 각각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에리자베스한인교회 초청 뉴욕원로목사회 일례회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 7월 초청예배가 지난 24일 중부 뉴저지에 위치한 에리자베스한인교회(담임 소재신 목사) 초청으로 선진 메도우 파크에서 열렸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수현 목사의 사회로 소재신 목사가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소목사는 "사도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과 같이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원로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다. 박성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에리자베스한인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일례회 후 기념촬영했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패밀리터치 '부부행복학교' 수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패밀리터치 '부부행복학교' 수료식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한 '부부행복학교' 수료식이 지난 24일 있었다. 뉴욕우리교회에서 지난 6월 5일부터 8주간의 과정으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결혼과 가

정의 이해, 남녀 차이 이해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 등을 배우, 배우자를 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사랑의 기술과 건강한 대화법, 갈등 해결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뉴욕장로교회, 김한요 목사 88% 청빙지지 얻어

뉴욕장로교회가 지난 29일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김한요 목사(사진·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를 차기 담임목



▲김한요 목사

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교인 744명이 참석한 임시공동의회에서 김한요 목사는 찬성 645표, 반대 91표, 무효 8표로 3분의 2가 넘는 88%의 지지를 얻었다.

김 목사는 지난 4월 열린 뉴욕장로

교회 총계부흥성회에서 설교하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 인터넷논문에 의하면 "청빙결정이 김한요 목사의 청빙지원이나 허락 없이 진행된 결정이라는 것이 문제"이며 뉴욕장로교회 청빙위원회는 공동의회 결정 후 김 목사의 허락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 15세인 김한요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메사추세츠 주 앰허스트한인교회(1992-1995),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1995-2005), 캘리포니아 주 세리토스장로교회(2005-현재) 등에서 담임목회를 해왔다.

(유원정 기자)



밀알 장애인캠프에서 공연하는 이노비

이노비, '밀알 사랑의 캠프' 서 콘서트

미주밀알 동부지역 연합 장애인 캠프 '밀알 사랑의 캠프'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서머셋 더블트리호텔에서 개최돼 성황리에 마쳤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 9개 지역 600여명의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인 캠프와 어린이를 위한 캠프로 나눠 예배와 그룹 활동, 이노비와 함께 하는 콘서트 등 다양한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대표 강태욱)는 미주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장애인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 캠프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받으며 캠프의 둘째 날 밤을 장식했다.

한편 이노비는 지난 26일에도 맨해튼에 위치한 드윗 너싱홈을 찾아 70여명의 환자와 노인들에게 클래식 공연을 펼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인터넷이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 한국방송을 보세요. Familyiptvusa.com. 고품질 패밀리 IPTV. 영화채널 포함 월/\$29.99로 다양한 한국방송을 당일 또는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TV로 시청하세요! 패밀리 IPTV만의 또 하나의 장점 선택보기 (VOD)기능. TV 리모콘 하나로 방송 3사의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8시뉴스/시사/다큐 및 한국최신영화, 어린이 영화, 기독교 설교 등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끌러볼 수 있습니다. 마켓 DVD나 비디오를 빌러보시는 것처럼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합니다. EBS / SBS / KBS 1 / KBS 2 / MBC / YTN / SBS ESPN / SBS GOLF 전화: 646-220-8324 이메일: familyiptvusa@yahoo.com

김승곤 목사 성경강좌. 일시: 2012년 6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 장소: 한미장로교회당 929 S. Westlake Ave. L.A., CA 90006. 참가자: 초교회, 초교파, 아직 교회에 나가지 못한 분이라도 진리를 알고자 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연락처: 213-201-5638, 213-453-4400 해- 록 선교회(Sea and Land Mission). 3 Alvarado St, W Olympic Blvd, 3 Westlake Ave.



# 10월 27일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열린다

## 'A Line in the Sand' ...한인집중시간 오후3시-5시30분

2012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10월 27일(토) LA 소재 크렌셔 크리스천센터(Creenshaw Christian Center)에서 'A Line in the Sand'란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된다.

미주 기독교계 단체들과 한인교계 단체장들은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에도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를 개최하며 한인 집중참가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30분"이라고 밝혔다.

본 기자회견은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장) 사회, 박성규 목사(남가주교회 부회장) 기도으로 시작돼 박희민 목사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박희민 목사는 "지난해 로즈볼 연



2012다민족연합기도대회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다

합기도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미국교계대표들과 소수민족 교계대표들이 몇 차례 만남을 통해 금년에도 다시 한 번 연합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는 미국과 한국의 대선도 있으며 영적으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개 교회와 성도

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드레이드 목사(Rose Bowl Gathering 대표)는 대회 의미와 취지에 대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긴박한 시점에 있어 기도가 절실하다. 지난해 기도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14개 나라와 연결됐고 14개의 방송과도 연결돼 전 세계가 함께 기도했으며 이 집회에서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 같은 시간에 기도했다.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이며 기도의 열정이 강렬한 나라이다. 11/11/11 기도회에서 한국은 기도의 불을 붙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의 대선과 미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길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각 교계 단체장들은 다시 한 번 기도의 불꽃이 솟아올라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은총아래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 대회는 지난해 집회 이후 결성된 '로즈볼 개터링'(Rosebowl Gathering)을 비롯,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 등이 주최하고 한인 주관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가 담당한다. 또 각 지역 교회협의회, KCCD USA(미주한국대학생선교회, KCCC USA·대표 김동환 목사), 자마(JAMA·대표 김준근 장로) 등이 인원 동원 및 봉사자를 맡는다.

(이성자 기자)



LA 제8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 관한 기자회견 후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목회자 위한 아버지학교 연다

### 8월20-22일, LA 제8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LA 제8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오는 8월 20일(월) 오후 2시부터 22일(수) 오후 3시까지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열린다.

지난 30일 정오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LA 제8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느라 자칫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한 목회자들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버지학교의 스텝인 주창국 장로(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장)는 "얼마 전 애틀랜타에서 좋지 않은 일을 보면서 아버지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다"고 말하며 "아버지학교는 이시대의 가정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다. 아버지 학교는 강력한 성령운동, 평신도 연합운동, 그리고 삶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목회자 아버지학교의 강사는 성경경 목사(파사데나장로교회), 이태경 목사(텍사스 엘보소중앙침례교회), 윤덕곤 목사(앨버틴브릿지교회), 정수일 목사(샌디에고한빛교회)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8기 행사준비위원장 김영찬 목사, 진행자 박세현 목사, 조장팀장 김인구 목사, 관리팀

장 광부환 목사, 찬양팀장 육기돈 목사, 주창국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장, 조경래 사무국장 등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아버지학교는 나쁜 아버지가 참가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좋은 아버지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곳"이라며 목회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30여명의 목사 봉사자들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섬길 예정인 이들은 또 "한국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너무 세다. 또 많은 경우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만 가지고 자신이 가장 역할을 잘한 것으로 착각한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참가비는 100달러이며, 문의는 (213)382-5454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사무국 또는 (562)833-5520 김영찬 준비위원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 남가주든든한교회 비전트립 위한 뱅킷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청년/청소년 시애틀 비전트립이 오는 8월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비전트립 단원들은 출발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6시 금감리련을 위한 뱅킷을 열고 비전트립 기간 중 갖게 될 사역소개와 함께 프

로그램 일부를 공개했다. 뱅킷을 위해 데커레이션은 물론 단원들이 직접 서빙을 맡아 섬기며 참석한 이들의 후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성공적인 비전트립을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EM과 유스



갈멜산기도원 7월정기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조성근목사

근 목사가 LA를 방문, 정기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1982년에 시작된 안양 갈멜산기도원은 서울 시흥 옆 경기도 안양 초입에 자리하고 있으며 매주간 2만5천여 명이 찾아와 은혜를 받고 있다. 또한 갈멜산기도원은 미자립교회 후원, 신학생 훈련지원, 경찰선교, 호스피스후원 등 국내 선교는 물론 세계 20여 국가에 교회개척, 건축 등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앞장서 오고 있다.

미주갈멜산 기도원 8월 정기집회는 16일(목)부터 23일(목)까지 조성근 목사 인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 갈멜산 금식기도원 7월 정기집회 성료

지난 2월 LA 한인 타운 한 가운데 세워진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7월 정기 집회가 19일부터 26일까지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30분에 개최된 정기 집회는 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 조성근 목사가 직접 인도했다.

정기집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집회에서 조성근 목사는 마태복음 8:1-4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는 많은데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말한다. 알고 있으나 표현이 안될 수는 있지만 삶은 변화돼야 한다. 무리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다.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되어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미주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는 매일(주일 제외) 황건영 목사(미주갈멜산기도원 원목) 인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일 한 주간씩 조성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새생명선교교회 설립기념 감사부흥성회**  
 새생명선교교회(담임 김만수 목사)가 설립 6주년을 맞아 감사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로 남진선 목사(한누리교회/인터서브선교회 대표)를 초빙해 10일(금)부터 12일(주)까지 열리며 부흥성회에 앞서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문의: (818)952-2449

**유럽성시화 미주대표단 모집**  
 유럽성시화 미주대표단 7개국(10월1일-13일/참가비 2,800달러) 팀과 4개국(9월30일-10월6일/참가비 2,100달러)팀을 모집한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에서 개최되는 순회대회 참석과 각 지역 관광 및 기독교 문화탐방이 준비된다. 자세한 것은 미주(LA)성시화 운동본부와 홀리클럽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213)384-5232/  
 laholycity@yahoo.com/ www.laholycityusa.org

**커넬상담대학원 여름특강 안내**  
 커넬상담대학원에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여름 특강을 준비한다. '시편 상담'으로 알려진 총장 박태문 박사를 비롯해 덴 페터스 교수/외도의 원인과 극복을 위한 상담, 심 명구 목사/영성 상담, 금병달 목사/이혼 및 사별가정 회복 상담 등이 진행된다. 8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 (714-995-9988)

**KCCD, 교회봉사책임자 초청모임**  
 한국기독교 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해빈)는 오는 13일(월)과 14일(화) 두 차례에 걸쳐 목사와 교회 내 사회봉사 부서 책임자 초청모임을 갖는다. 본 모임을 통해 주류사회와 단체들이 끼치는 영향을 업그레이드 하고 교회 내 친목과 네트워크 강화 및 이민사회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문의: (213)985-1500

###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비전트립에서 찬양을 맡은 단원들

에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천 목사는 청소년사역 전문가로 미주복음 방송을 통한 청소년 상담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금번에 갖게 되는 비전트립은 시애틀 지역교회를 방문해 유스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개척교회 섬김과 노방전도, 다민족 교회와 친교, 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자녀들의 비전트립을 위해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며 학부모들이 직접 기도를 담당한다. 또한 수요일에는 특별 기도를 위한 저녁 집회로 모인다.

(이성자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13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중언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3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2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2년 9월 30일

##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로 광 고 안 내	종류(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광고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광고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야함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7.7cm × 5.8cm		
폴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속하광고(사전삽입)	3.7cm × 7.5cm		\$200.00

부 록 리 슷 생 신 청 서	항 목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ci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CBS] 총22개 종목 374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런던올림픽 출전 선수 중 기독 선수와 임원은 모두 75명, 선수단 규모의 1/5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마린보이 박태환과 국민역사장미란 선수. 수영 자유형 200미터와 400미터, 1,500미터에 출전하는 박태환 선수는 개막식 다음날 28일 새벽, 200미터와 400미터 본선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미란 선수는 올림픽 2연패를 위

해 금빛 바벨을 들어 올릴 재비를 하고 있다.

장미란 선수는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는 다음달 5일 역대 75KG

### 런던올림픽 출전 기독 선수는 누구?

#### 박태환·장미란 선수 등 금메달에 도전

이상 체급에 출전해 지난 베이징 올림픽 당시 보여준 감동의 기도를 세리머니를 재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양궁 종목에는 이성진 선수가 출전한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였던 이성진 선

수는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이 열리는 30일 새벽, 한국 양궁 여자 단체인 올림픽 7연패라는 위업에 도전한다.

이밖에 남자 유도 81KG급에 출전하는 김재범, 국기 태권도 종목에 출전하는 황경선, 이대훈 선수, 역도 사제혁, 수영 정다래 등 47명의 기독 선수들이 감동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세계스포츠선교회와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등도 올림픽 선교단을 꾸려 런던 현지에서 예배와 선수 심방, 경기 응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 한교단 다체제의'장로교연합총회추진

#### 26일 한장총 공청회 열어 헌법초안 공개

[CBS]수백 개로 갈라진 장로교단을 하나의 장로교회로 만들자는 이른바 '한교단 다체제' 형태의 연합장로교회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27개 주요 장로교단들의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이하 한장총)이 26일 공청회를 열어 연합장로교회의 헌법초안 골격을 처음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밝힌 연합장로교단 명칭은 장로교단의 전통을 잇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로 정

했다. 연합장로교 총회는 또 각 교단이 현재 사용 중인 헌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각 회원교단들의 특성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특히 연합총회의 회원은 10개 이상의 노회와 그 밑에 5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교단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보다 작은 교단들은 교단간 통합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작게는 40내지 50개 교회로 교단을 만들거나 몇 백개 교회로 교단

이 나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총회는 또 신학교육위원회를 뒤 각 교단 총회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맡도록 했다.

무분별한 신학교 난립을 막고 같은 신학적 전통을 유지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한장총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합총회 헌법을 오는 9월 각 장로교단 총회에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의 장로교단의 근간을 이룰 연합총회 헌법초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장로교단 총회가 열리는 9월까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란 교단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 교단명칭을 완전히 바꿀지도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교단 분열이라는 역사적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란 점에서 장로교 연합총회 구성이 성사될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희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 장로교단들은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00주년 기념예배를 갖는다.

### “9월까지 새 찬송가 내놓겠다”

#### 주요 12개 교단장, '21세기 찬송가' 전면포기

주요 교단장들이 한국교회가 사용 중인 '21세기 찬송가'를 전면 포기하고 9월 교단 총회 전까지 새로운 찬송가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이 현장의 혼란을 무릅쓰고 새 찬송가 출시를 선언한 것은 (재)한국찬송가공회가 법적 문제로 찬송가 출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기감 기성 기하성 기집 루터회 등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소속된 12개 교단장은 26일 서울 정동 달계비에서 모임을 갖고 찬송가 제작의 당위성과 향후 제작 일정을 밝혔다.

김용우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공동회장은 "(재)한국찬송가공회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재산은 승계 받지 못했다. 유일한 방안이란 점에서 장로교 연합총회 구성이 성사될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희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 장로교단들은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00주년 기념예배를 갖는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강승진 총무는 "새로 출시될 찬송가는 530곡 분량으로 2006년까지 23년간 사용된 '통일찬송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편집을 마치고 현재 검수 작업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교단 총회 때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총무는 "신앙전통 전승 차원에서 옛 가사는 그대로 보존하고 통일찬송가의 애창곡은 장수를 일치시킬 것"이라며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상 사용곡을 원칙으로 하며 예배찬송과 별도로 70곡의 집회 찬송을 수록할 예정이고 예배와 교회력에 따른 분류도 새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단장들은 (재)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단장들은 "지금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교단 뜻을 거슬러 (재)한국찬송가공회를 설립함으로써 발생했으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도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소송 중단과 함께 자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돼야 할 찬송이 저작권료 징수대상이 되고 수많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 데 큰 슬픔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찬송가 제작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종자연 종교편향 조사 거부하라"

####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 전국 미션스쿨에 공문

[미션라이프]한국교회가 전국의 미션스쿨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공대표 박광서)의 종교편향 조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와 예장 통합 합동 기장 기성 기집 등 11개 단체·교단이 참여하는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원회'는 30일 기독교 총립학교 및 타 종교 총립학교에 종자연의 종교편

향 조사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과 불교단체의 종자연 조사 영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션스쿨뿐만 아니라 타 종교 총립학교에도 종자연의 종교차별 조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공문에서 "총립학교에서 종교자유를 침해했다는 일부 학생의 불만은 평준화 정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해

결책은 총립학교의 종교교육 포기보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정 종교교육이 싫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종교선택권을, 학교에는 종교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정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교육정책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꾸로 학교에 종교교육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단체인 종자연을 통해 미션스쿨의 종교차별 실태를 조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만일 미션스쿨이 이런 조

사에 응한다면 우리의 종교교육이 종교차별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면서 "전국의 미션스쿨에 종자연의 종교차별 조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앞으로 정부와 각종 기관의 부당한 간섭에 당당히 맞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박종인(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목사는 "종자연 조사를 거부하게 된 것은 종교교육권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크리스천의 분명한 권리가 때문"이라며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정부와 사회에 적극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단이 만든'종교통합'동영상 주의

#### WCC 총회 준비 관계자들을 '사탄송배자'로 규정

[CBS]조용기, 이영훈, 김삼환 목사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사탄송배자로 규정한 동영상 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종교통합의 실제'란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 동영상은 개신교와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있는 사진을 짜깁기에 '종교통합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WCC 총회를 '종교통합을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교회 지도자들을 '사탄송배자'로 규정하고 있어 불의를 빚고 있는 것.

여기에 가톨릭 교황과 예장통합, 감리교, 침례교 등 교단을 종교통합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꼽으면서 이들은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과 한통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말세에 배교가 일어난다는 설명으로 시작하는 15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3월 30일 유튜브에 게시된 한 때 40만건이 넘는 조회를 기록했으며 현재 수천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이 동영상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모교회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동영상 제작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이 동영상을 올린 게시자의 아이디를 추적해 보면 지

난 1991년 예장통합총회가 이단 단체로 규정된 회복교회(형제교회)로 연결되고 있어 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전남 곡성군 이수정 연구용역 착수

[미션라이프] 전남 곡성군이 일본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한국 근대화와 기독교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수정의 행적과 업적을 발굴키로 했다.

곡성군은 24일 '이수정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갖고 체계적인 학술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김수진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 등 3명으로 구성했다.

군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수정 선생의 행적을 찾고,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이수정 선생 연구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

하고 곡성 발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은 일본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으며, 최초의 한글성서 번역 및 발간, 미국에 조선 선교사 파견요청 등 한국교회사에서 의미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구한말 개화와 관료로 임오군관(壬午軍亂)때 민비를 구출한 공을 인정받아 1882년 9월 수신사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도쿄에서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을 읽게 되고 기독교에 귀의, 1883년 4월29일 로케추주 교회에서 미국 선교사 조지 낙스에게 세례를 받았다.

1883년 6월부터 우리말 성경 번역에 착수, 1885년 2월 요코하마에서 신약 마가전 복음서인 1000부를 발행했다. 이 성경은 1885년 4월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할 때 들고 오기도 했다.

##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http://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영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집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영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전영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영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대위포인트 중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 결제 후 이메일([kcdc@chollian.net](mailto:kcdc@chollian.net)),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  
Korea Church Data Center

홈페이지 - [www.kcdc.net](http://www.kcdc.net)  
이메일 - [kcdc@chollian.net](mailto: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 해피 라이프 (13)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 감사하고 기도하는 엄마 되기

나는 어릴 적부터 품었던 꿈에 다시 도전하기 전에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먼저 감당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감히 그것을 꿈에 이루기 위한 든든한 바탕을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양육과 교육에 성공했다"며 부러워하며 그 비결을 묻는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자녀교육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다. 나는 아이들이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서 사회와 국가, 세계평화를 위해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 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수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박사님, 성공적인 자녀교육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요."

자녀는 그 가정의 거울과 같다. 그들은 부모가 여러 가지 난관을 이기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성공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배운다.

우리 부모는 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고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아닌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라고 믿는다.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아버지로 인해 아이들이 낙심하게 하기도 하는 아버지가 실명이라는 절망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자녀양육에 적용했다.

남편은 사고로 두 눈을 잃었고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누나의 죽음을 겪었고 두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맹인 소년가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남편은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 또한 불치병을 앓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결국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감사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수준 높은 신앙심을 가진 그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남편 역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다. "한 가지를 잃은 것에 불평하지 않고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감각이 남아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건강하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제로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아버지로써의 역할도 매우 훌륭히 해냈다.

(다음호에 계속)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해가기 시작하니 매일 감사할 것이 넘쳤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투쟁하여 목표한 바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기쁨과 보람은 더욱 값졌고 그것을 곁에서 그대로 보고 자란 아이들은 우리를 롤모델로 삼았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생활은 다른 무엇이 대신 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가정교육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진석이와 진영이를 보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이들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삼십대를 지나가는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거쳐 가야 할 미래의 장벽도 남아 있다. 물론 내 아들들은 저마다 목표한 바를 성취하고 장애물을 만나도 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것이다.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살면서 무엇을 남겼는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어떻게 이웃과 나누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 받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아이들의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것인지 아닌지 밝혀질 것이다. 바로 그때, 그들의 삶이 진정 아름답고 성공적이었노라는 평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여성으로서 또 그들의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양육의 기도다.

자녀를 위한 기도하기-작자미상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그들의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애쓰기보다/내가 그들의 모범이 되는 일에 마음을 쏟으리라/그들의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보다는/내 마음을 넓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라/그들을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는/더 많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내가 다시 아이들을 기르게 된다면/잔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기보다/그들을 위해 기도하리라/간섭하고 끼어들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기보다/그들을 하나님께 내맡기리라

내가 다시 아이들을 기르게 된다면/찬양소리로 그들의 아침을 깨우리라/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소리로 잠들게 하리라/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더 많이 기도하리라/기도하리라 눈물의 기도를 가진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기에...

그러나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나는 여전히 기도하리라/그들을 위해 무릎 꿇으리라/기도로 나의 과오를 씻어내리라/그들의 상처를 감싸 주리라/기도로 그들의 세계를 밝게 열어주리라/기도는 그들을 완전하신 참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에...

(다음호에 계속)



석은옥 여사와 고 강영우 박사

## 네 팔



# 선교지 편지

안녕하세요, 네팔의 이훈우 선교사입니다. 긴급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사역으로 인해 잠시 집을 떠났다가 왔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가 다녀온 지방은 네팔에서 가장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을 다시 8월에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지난 15일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일로 30명의 인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 환경과 도로 상황들이 우기로 인해 많이 어렵습니다. 교통신호와 도로 상황들이 우기로 인해 많이 어렵습니다. 교통신호와 도로 상황들이 우기로 인해 많이 어렵습니다. 교통신호와 도로 상황들이 우기로 인해 많이 어렵습니다.

가난한 동네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는 장기간 누워있었고 또 45도가 넘는 날씨와 더러운 환경으로 인해 몸에 욕창이 생겨고 생하고 있었고 소변을 연결한 호스를 비닐주머니에 담고 있었습

니다. 큰 병원을 가려면 카트만두에 가야 하기에 차비와 식비, 병원비를 줄 테니 남편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카트만두까지 15시간 버스를 타고 병원을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빨리 병원에 오지 지금까지 아무 했냐?"고 하니 "가난해서 병원비가 없고, 만약 병원비가 있으면 그 돈으로 자녀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MRI, CT, X-RAY, BLOOD TEST 등 검사를 받았고 몸에 난 욕창을 치료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팔은 아내가 병이 들고 아프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들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병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찾을 것 같아서 환자는 많은 근심과 절망 중에 있

습니다. '이 여인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 중에 '휠체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작은 바느질 가게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휠체어와 병원비와 약값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070-7561-7477 이메일: gpeople1004@hotmail.com http://cafe.daum.net/gpeople1004 이훈우 선교사 드림



## 선교노석

### 아이티 고아원 돕기

저희 Helping Hands Mission Network(대표 조항석 목사)는 2008년부터 아이티 고아원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음 40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한 고아원에 식량, 20명의 남자 아이들 고아원에 학비를 후원하면서 시작된 고아원 후원 사역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을 거치면서 이제 8개 고아원 6백여 명의 고아들에게 식량을 후원하는 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진 이후, 이제 열한 번째 아이티를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러 갑니다. 이번 여름에도 열 다섯 명의 구호팀이 Hope for Haiti를 주제로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

아주고, 함께 놀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아직도 형편없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은 아이티 고아원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지난 2년여간 여러분의 도움으로 후원한 고아원의 어린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밝은 날로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티는 반드시 일어설 나라입니다. 고아들은 한국의 50-60년 대에 그러했듯이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지만 사랑과 배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지진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소망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아이티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랑의 손길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8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목마르고 배고픈 고아들에게 생수처럼 전해지기 원합니다. 지진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티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시기 원합니다. 고아들의 삶에 소망의 물을 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심고 물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이티 고아들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항석 목사 드림  
▲이메일: chocheny01@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7767, Fax: (02)325-422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백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군포시 남부동 370-10호	<b>금천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김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1-024-024, Fax: (02)31-024-4662 김포시 남부동 370-10호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122-0416, Fax: (02)122-0416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620-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3)3208-0491-5, Fax: (03)3208-0491-5 2-10-9 Gasei Bldg. 10F,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127-9289-8, Fax: (02)127-928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대일) Tel: (02)31-024-024, Fax: (02)31-024-024 VIA DEI GUSTINI 32-38 00173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새연교회</b> 담임목사: 소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명락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승평교회</b>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안암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안곡교회</b> 담임목사: 서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주안교회</b>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장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정주주의교회</b> 담임목사: 서서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4794-6, Fax: (02)121-4794-6 서울시 남부동 370-10호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5)



##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한인 교회의 교육이 기존에 활성화되어 온 방식으로서의 교육의 방법들(소위 Classroom Education)이 약한 반면, 바로 그렇기에 “예배를 통한 교육”에 보다 무게가 실리어 왔던 것의 의미한다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 이야기에서 “예배를 통한 교육(Christian Education through Worship) 혹은 교육으로서의 예배(Worship as Christian Education)”는 교실 세팅이 아닌 “예배의식(ritual)”에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해 “경험적(experiential)”으로,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형성되어지고, 제자의 길을 배워 가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한인들을 성심으로 섬기는 과정에서 체득적으로 실행해 온 것이며, 동시에 보다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을 일구어 가기 위해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먼저는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은 무엇인지 (2)두 번째로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방법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지니는지 (3)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화”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깨닫게 하여 변화를 기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그 필수적인 “교화”를 담보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배는 가르침, 깨우침, 분별함을 주어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을 단련합니다. 예배는 예배자들 간의 상호 교류와 관계들을 통해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을 성숙하게 일구어 갑니다. 예배는 늘 예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양심을 확립해 갑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숙한 삶으로 옮겨지기까지 우리의 의지를 세워줍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참여함으로 경험하면서 일깨워지고, 깨닫게 되고, 변화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예배가 교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화를 담보하는 예배는 “언제나 반드시 예배자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배의 경험은 그저 편안하게 그냥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뒤흔들고, 좀 더 과

### 예배의 기독교 교육적 역할은 ‘교화’ ‘형성’ ‘양육’ 교화는 새로운 태도와 행동 이끌어내는 도전적이어야

어떻게 그 역할들 및 방법들이 우리 한인 교회의 어른들과 자녀들의 교육 사역의 현장에서 진행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차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예배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요즘 기독교 교육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는 통전적인 교회 교육을 위해서, 의도적이며 형식적인 교실 세팅에서의 교육과 의도적이지도 형식적이지도 않지만 친교의 자리 등에서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배움을 넘어, 의도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련의 이해들을 정립하려는 노력들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윈벌리(Anne E. Streay Wimberly)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특히 이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는 예배의 기독교 교육적 역할이란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과 이제 신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한 “교화(edification)”, “형성(formation)” 그리고 “양육(nurture)”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기독교 교육적 역할 그 첫 번째로 “교

격하게 말하면, 선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삶이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성숙한 사고를 하도록,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이 생기도록 예배자들의 이성과 감성을 휘저어 도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흔드는 도전 없이는 깨달음과 변화를 즉 교화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예배를 통해(교화를 담보하는 도전을 주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고, 그 신앙은 더욱 공고히 되어지고, 그들 안에 건전한 교리들이 뿌리내려지고,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태도들과 행동들(새로운 성숙한 도구와 중보기도의 사역들, 새로운 구제의 사역들, 새로운 섬김의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혹은 경험해야 하는) 교화의 모습이며, 결국 예배의 기독교 교육적 역할 그 두 번째인 “신앙과 기독교적 성품의 형성(Faith and Character Formation)”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형성”에 대해서는 다음 번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 월 원하시면 (막1:40-45)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40절). 여기서 이 문동병자의 신앙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절정을 주께 맡기고 따르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고집하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마6:10)를 구합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

의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15: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 온전히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시143:10).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 화 교회 부흥의 비결 (막2:1-12)

2절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문에라도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용신한다’는 말은 집이 좁아 겨우 무릎이나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이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부흥을 위한 중요한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 대신에 잘 지어진 예배당, 설교 잘하는 목사, 교인들 수를 과시하

며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보여주기에 힘쓰다보면 정작 만나야 할 예수님은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부흥이 지체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같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과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 수 믿음의 증거 (막2:13-22)

22절에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부대에 담은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낚은 가죽부대는 새것과 달리 탄력이 없어서 그곳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로 인해 부대가 터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복음을 결합시키는 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

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1:13)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한가? 옛 생활에서 떠나 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목 구제의 필요성 (막2:23-28)

26절에 놉 땅의 대제사장 아비야달이 다윗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제사장에게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사건(삼상21:1-6)이 나옵니다. 분명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비야달이나 다윗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물건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 사람들을 돕는데 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와 함께 구제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일곱 집사를 택하게 된 동기가 제

계적인 구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해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 그럼에도 행4:34은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요한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다가 헌금하면 사도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구제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금 선을 행하는 것 (막3:1-6)

4절에 주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적극

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정의하시는 악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토 병의 원인 (막3:7-12)

10절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병으로 인해 고생이 막심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 병을 고침받고자 서로 밀고 밀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병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고통과 파멸로 밀어 넣은 이 병의 원인이 어디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창3:17에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병을 비롯한 사람들이 땅위에서 겪게 될 슬픈 고생과 고난이 함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모든 좋은 것을 앗아갑니다. 행복을 파괴합니다. 고통을 가져다주고 병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하고 성경 명령을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사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 본교 소개 및 특전

1. 1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U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도,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 호주 현지강의 안내

Aug 20-Aug 24 (8월 20 - 8월24일)

DI 808 Discerning God's Will(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Stephen Park

Aug 27-Aug 31 (8월 27 - 8월31일)

PM 853 Dynamics of Spiritual Growth(영적 성장의 원동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 21세기 여성 지도력 기발 세미나

강사: 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일시: 8월 28일-29일  
장소: 시드니 한우리 선교센터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674-572-6100 (Ext.: 6336), 674-377-2619(한국어)

E-mail: ps@grace.edu, gskomestudies@gmail.com



# 사진으로 보는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 “2016년에 다시 만납시다!”



KWMC2012 횃튼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KWMC, KWMF, GYKYM 사무총장들

제7차 한인선교대회 마지막날 모든 순서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마지막날 파송예배 설교자 장영훈 목사



개회예배 설교자 론 앨리스 목사



첫날저녁 설교자 오정현 목사



둘째날 저녁 설교자 존파이퍼 목사



세째날 저녁 설교자 서삼정 목사



네째날 저녁 설교자 로렌 커닝햄 목사



기수입장



세계속의 선교사들의 입장



어린이 선교대회



선교소명자초청의 시간에 결단을 한 자들과 함께 선교사 연합성가대가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다



선교사 초청시간에 결단한 한 자매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날 찬양한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 선교중창단



선교사연합성가대

〈9면에서 계속〉  
 넷째 날 저녁집회 때 선교 소명자 초청 시간에 선교의 비전을 받고 결단한 자들이 단상에 올라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할렐루야를 부르며 이들의 결단에 화답해 감동을 주기도 했다.  
 또한 성악가 최경선 여사, 이은혜 선생, 찬양사역자 이종미, 홍진호, 서문호 등이 저녁집회 특송을, 바이올리스트 샤론장, 피아니스트 김애자, 오보에연주자 김정규, 김경수의 2명의 첼로 3중주 등으로 이번 대회를 빛냈다.  
 또한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성찬예식을

가졌는데 100여명의 선교사들이 직접 성찬위원으로 분잔과 분병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이 시간을 통해 선교현장에서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힘을 얻는 깊은 체험을 하기도 했다.  
 ○..제 7차 세계한인선교대회가 열리는 동안 시카고지역은 새벽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지다가 맑아지는 날씨와 낮 최고 온도 100도를 육박한 가운데, 참가한 선교사들은 선교정보들을 듣고 나누고 집회를 통해 영적 충전을 갖는 기회가 됐으며, 이 기간 중 열린 선교 전시장에는 본지를 비롯한 50여개의 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선교전략과 방법들이 소개됐다.

또한 본 선교대회가 열리기 앞서 20일부터 23일까지 세계선교사대회가 열렸으며 △선교포럼 △선교일반/역사/동향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생활 △한인세계선교 △북한선교 및 한인디아스포라 선교동력화 △교회와 선교 △타문화 선교 △선교사/선교현신자 △선교사역/전략 등 선택강좌가 개설됐다.  
 그 외에 어린이선교대회, GYKYM 차세대 선교대회, MK선교대회 등이 함께 열려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대회로 진행됐다. 〈특별취재: 박준호 기자〉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

**JoyLA.com**

Frelle 기존의 어떤 샤워기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 샤워기 혁명!!

프리엘 마이크로버블 샤워기

아직도 일반 물로 샤워 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이 샤워나 목욕할때마다 세균의 폭포수를 계속 맞게 하시겠습니까?

드라마 로얄패밀리에 소개  
 선풍적 인기를 얻은 제품

마이크로버블이란?  
 마이크로버블이란 0.06mm 이하의 초 미세기 포를 말합니다. 마이크로 버블 수는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부미용,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우수한 살균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발생 및 운열효과로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마이크로 버블효과

1. 나이드신부, 등가력운동 완화(3일후)
2. 나이드신분, 몸의 냉세 - 덤, 니코틴, 노인성 등(즉시)
3. 머리칼 빠짐 적고 탈모예방(3일후)
4. 얼굴의 기름때 및 피지제거(즉시)
5. 화상등 염어지는 각질제거(즉시)
6. 아토피 및 각종 피부병 완화(2-3주후)
7. 여성 피부세척 및 보습효과 최고(즉시)
8. 알지, 영-유아기 장남감, 식기, 야채, 과일 등세척 및 살균효과 99.9% (즉시)
9. 개나 고양이 냄새 제거 및 피부와 털의 각종 균제거(즉시)

아토피  
 피부보습도 향상 및 각질제거로 아토피 증상개선에 도움이 됨

여드름  
 피부노폐물제거 및 각질개선, 피부보습도 향상으로 인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됨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스트롱 워어코드  
**NEW 성구사전**  
 개역개정판

New Bible Strong's Concordance

360,000절이 수록된 혁신적인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

로고스 STRONG CORD  
**히브리어·헬라이어 사전**

HEBREW-GREEK DICTIONARY  
 개역개정판

로고스 **NEW 성경사전**

LOGOS BIBLE DICTIONARY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히브리어, 헬리어를 병기함. 원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  
 여러 역본을 단어와 구절마다 대조하여 병기함. 단어에 스트롱코드를 붙여 활용도를 높임  
 단어에 한자와 영어를 명시하여 이해를 도움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